

CDI 세미나 2008-10

공주시 현안과제 대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공주시 발전방향과 과제

2008. 4.

- | | |
|-----|---------------------------------|
| ● 일 | 시 : 2008년 4월 22일(화) 16:00~18:00 |
| ● 장 | 소 : 공주시청 대회의실 |
| ● 주 | 최 : 공주시 |
| ● 주 | 관 : 충남발전연구원 |

위 크 쏘 안 내

♣ 개 요

- ◆ 주 제 : 공주시 발전방향과 과제
- ◆ 일 시 : 2008년 4월 22일(화) 16:00~18:00
- ◆ 장 소 : 공주시청 대회의실
- ◆ 주 최 : 공주시
- ◆ 주 관 : 충남발전연구원

♣ 진행 순서

16:00~16:02 개회 및 국민의례

16:02~16:07 내빈 소개

16:07~16:10 인사말 **이준원** 공주시장

16:10~16:13 인사말 **이동섭** 공주시의회의장

16:13~16:16 인사말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

16:20~17:05 주제 발표

제 1 주제 : 2010 대백제전을 통한 공주시 관광인프라 구축 방안
- **박근수** 교수 (배재대학교)

제 2 주제 : 지방중소도시의 대기업 유치방안
- **소진광** 교수 (경원대학교)

제 3 주제 : 공주시 환경색채 정립방안
- **이충훈** 연구위원 (충남발전연구원)

17:05~18:00 종합 토론

좌 장 **김용웅** 원장 (충남발전연구원)

토 론 자 **이인희** 책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신동호 책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정현선 교수 (경북대학)

김선태 의원 (공주시의회)

이태묵 팀장 (공주시 관광축제팀)

황교수 과장 (공주시 기업유치팀)

이창주 팀장 (공주시 미래도시팀)

18:00~18:10 종합정리 및 폐회

제1주제 2010 대백제전을 통한 공주시 관광인프라 구축 방안

I. 서론	3
II. 2010 대백제전의 개요분석	4
III. 2010 대백제전을 통한 공주시 관광인프라 구축방안	13
IV. 결론	28

제2주제 지방중소도시의 대기업 유치방안

I. 서론	31
II. 대기업의 입지이전 행태특성	33
1. 지역경제의 작동 체계	33
2. 기업의 입지행태 특성	35
3. 지방 중소도시에서의 대기업 입지 제약	46
III. 지방 중소도시의 대기업 유치방안	48
1. 지방 중소도시가 대기업을 유치하려 할 경우 고려해야 할 점	48
2. 지방 중소도시가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	50

제3주제 공주시 환경색채 정립방안

I. 환경색채개선의 필요성 및 목적	59
II. 환경색채의 개념	60
III. 지역 아이덴티티를 위한 색채계획	63
IV. 해외도시 색채	64
1. 이집트	64
2. 파리	64
3. 베를린	65
V. 환경색채 측색	66
1. 측색방법	66
2. 결과분석	68
VI. 환경색채 가이드라인	73
1. 환경색채 디자인 컨셉 설정	73
2. 공주의 색채이미지 스케일	74
3. 환경색채 적용 가이드라인	75
4. 공공시설물의 색채적용	76
VII. 결론	76

제1주제

2010 대백제전을 통한 공주시
관광인프라 구축 방안

박 근 수

(배재대학교 교수)

2010 대백제전을 통한 공주시 관광인프라 구축 방안

박근수 | 배재대학교 교수

I. 서론

2010 대백제전은 충청남도에서 백제문화를 홍보하고 관광 상품으로 연출하기 위한 행사이다. 백제문화권 중 특히 공주와 부여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문화의 세계적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서 백제문화의 가치 확산과 국제관광콘텐츠로 전환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행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2010 대백제전을 통하여 개최지역의 관광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있다. 기존의 많은 메가이벤트 행사들이 행사기간 중에는 많은 방문객들을 유치하지만 행사기간 후에는 행사효과가 지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010 대백제전’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행사효과의 지속화를 위해서는 관광인프라를 행사기간 중, 그리고 행사기간 후에 운용할 프로그램을 감안하여 조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2010 대백제전을 개최하기 위하여 지역의 관광수입을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행사개최지역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2010 대백제전의 개요를 분석하고 국내외사례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2010 대백제전’은 단순히 행사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행사기간 전, 행사기간 중, 행사기간후의 지속적인 행사효과를 창출해야 함을 기본전제로 공주시의 관광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2010 대백제전의 개요분석

이 부분에서는 '2010 대백제전 타당성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의 내용을 바탕으로 2010 대백제전의 개요분석과 개최예정지역중 공주시의 지역현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 2010 대백제전의 개요 (2010 대백제전 타당성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1) 대백제전의 목표

<표 1> 대백제전의 목표

지역적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제문화에 대한 지역민의 자부심 지역문화와 지역에 대한 애향심 고취 백제문화의 새로운 발전모델 형성을 통한 신지역 문화 창조 백제문화권역의 재생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발전 형성 지역의 정체성 확립
국가적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제문화의 예술성, 우수성, 다양성과 국제성을 드러내 부여와 공주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실현 및 이를 통한 국가 이미지 향상 상대적으로 소외된 백제권, 내륙권의 발전으로 국가균형발전 숨겨진 백제역사, 문화에 대한 학문적, 역사적 접근을 통한 고대사 정리 대규모 국책사업인 <백제역사재현단지>의 국민적 홍보 대규모 정책사업인 역사문화도시 홍보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국제적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백제전을 통한 백제의 존재성을 세계에 알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및 세계역사도시연맹가입 등을 통한 한국사에 대한 세계적 관심 유도 대백제전을 통해 문화와 예술에 대한 대한민국의 수준 홍보 재미, 볼거리를 추구하는 기존의 테마마크 컨셉과 다른 체험과 교육, 문화와 역사를 오감으로 향유하는 <백제역사재현단지>를 세계에 소개 및 관광 유도
행사 자체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0 대백제전의 역량, 명성, 이미지가 이후 백제문화제에 계승발전 되어, 백제문화제가 세계적 축제가 되는데 기여 백제문화제의 콘텐츠 개발 및 발전에 도움 백제권역 및 주변지역의 발전

(2) 대백제전의 필요성

1) 지역균형발전

- 신라문화의 중심지 경주가, 편의시설 확충, 도로 및 도시 정비를 통해 역사문화도시로 위상을 갖춘 반면 백제문화의 중심지인 공주와 부여는 고도라는 명칭만 남아 있음
- 간판정비, 전선지중화 등 도시다운 공주와 부여 모습 필요
- 도로환경 정비 및 외부지역과의 교통 환경 개선을 통한 접근성 향상 필요

2) 정체성 확립

- 백제문화라는 공통의 주제와 비전으로 지역 정체성 확립 필요
- 백제의 정서와 특성을 고려한 백제다움 찾기
- 백제문화 및 문화재의 파악 및 발굴 그리고 지역 간의 연계를 통한 백제문화권 개발

3) 지역민의 소외감 배려 및 희망 주기

- 개발로부터 도외시 된 지역민의 소외감 회복 필요
- 공동의 목표 설정과 이를 통한 지역에 대한 소속감 및 자신감 부여
- 단기적,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한 지역민 공통의 노력과 희망

4) 백제 문화의 세계화와 지역의 국제화

- 지역문화로 머물러 있던 백제문화의 세계화
- 침체된 지역의 발전을 위한 국제화

5) 지역 이미지 향상

- 도시 발전을 통한 전통적인 옛 고도라는 과거 이미지 탈피
- 지역민의 자신감과 소속감을 통한 활력, 생기, 부활, 창조 등 발전적, 긍정적, 미래지향적 이미지 찾기

6) 국가 문화역량 강화

- 고대 백제 역사와 문화를 소개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이라는 이미지보다는 역사문화국가 이미지 강화
- 고대 백제 홍보와 국가 역사문화자원 확보를 통한 국제적 위상 강화
- 교육, 문화, 역사 그리고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한 관광매력도 확대

(3) 대백제전의 기대효과

- 지역민을 비롯한 국민의 문화 향수권 증대
- 백제역사재현단지의 국·내외적 홍보
- 역사, 문화, 관광 등 백제에 관한 관심의 증대
- 문화국가로서의 국제적 인지도 향상
- 문화 콘텐츠 개발 및 미래 산업을 위한 기초 인프라 및 인력 양성
- 국제적 메가 이벤트 준비과정과 실행을 통한 새로운 목표 및 희망 공유를 통한 지역민의 화합
- 백제, 백제문화, 대백제전이라는 지역 정체성의 확립 및 이미지 업그레이드

(3) 대백제전 바로보기



(1) 대백제전이란?

- 국제적 규모와 수준의 학술과 문화회의 : 한중일 국제 심포지엄, 유네스코 포럼, 세계불교문화 교류회의 등
- 지역민, 국민과 세계인이 하나가 되는 큰 잔치 : 독특한 백제문화 프로그램, 국제적 이벤트,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 등
- 문화, 역사, 창조산업 정보와 콘텐츠의 교류 : 한중일 메가 이벤트 연계, 세계역사도시간의 문화교류, 백제 네트워크의 결성 등

1) 백제 부활 운동

- 과거 찬란했던 백제 문화, 역사, 정신, 예술 등을 현재로 불러내는 운동
- 백제문화와 백제문화권역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새로운 전통창조 운동

2) 백제문화 세계화 캠페인

- 현대적으로 재창조된 백제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
- 잊혀진 백제문화의 재현을 통해 후손들에게 창조적 환경(Creative milieu)을 제공하는 행사

3) 크레비즈(CreBiz) 운동

- 개개인의 창조성(Creativity)으로 백제문화의 사업(Business)을 개발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산업운동

(2) 대백제전의 개념

1) 문화와 예술

- 백제의 문화와 예술을 테마로 하는 축제
- 5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백제문화제를 새롭게 해석한 국제문화행사
- 백제 예술문화 가치를 발견, 개발한 문화 콘텐츠 메가 이벤트

2) 역사와 교육

- 백제 역사 재정립과 현대적 교육이 있는 학술대회
- 역사교육 콘텐츠가 연구, 개발, 교류되는 포럼

3) 산업과 정신

- 백제의 정신을 산업으로 연결하는 박람회
- 관광, 여가 시장 홍보의 장

4) 지역과 세계

- 독특한 백제다움을 세계화시키는 교류
- 공주와 부여의 지역성이 세계와의 교류를 통해 국제화되는 과정

(3) 대백제전을 위한 준비

1) 지역민의 숙원

- 2003년 10월 25일부터 11월2일, 9일간 부여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백제문화관련 국제행사에 약 85%가 긍정적으로 방문의향을 말함
- 2005년 12월 3일부터 4일, 2006년 1월 7일부터 8일까지 총 4일에 걸친 부여 방문객과 지역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엑스포개최의 필요성과 방문의향에 대해 5점 만점에 4.09와 4.1로 높게 나타남
- 2007년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공주와 부여 지역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백제전 개최 타당성에 대해 5점 만점에 4.12로 높게 나타났으며, 94.5%가 대백제전에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했음

2) 충남도의 의지

- 백제문화 세계화를 위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옴
- 백제문화와 백제권역 발전을 위한 도차원의 “백제권 개발팀” 신설
- 백제문화 국제화 추진계획 수립 및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 전문인력 파견
- (재)백제문화제 조직위원회 설립
- 백제문화제 통합 및 대백제전 준비를 위한 주민 공청회, 간담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 대백제전 개최를 위해 일본 및 중국과 문화교류 협의
- 2010 대백제전 기반시설 및 인프라 조성을 위한 지속적 투자 및 연계사업으로 2008년 40억, 2009년 40억 배정 예정

3) 공주시의 노력

- 대백제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한 대백제전 팀 구성
- 공주 역사문화 및 자연유산을 활용한 공주역사예술도시 정비, 공주 관광단지정비사업, 고마나루 명승지역 개발 사업 등 진행하고 있음
- 체류형 관광객, 관광환경 개선 및 인프라 확장을 위해 숙박촌 조성

4) 부여군의 열망

- 백제문화 세계화와 부여지역경제의 발전, 그리고 지역민의 자부심을 위한 <부여백제역사엑스포>를 오래전부터 기획하고 있었음
- 2004년 이미 충남발전연구원을 통해 <부여백제역사엑스포> 타당성 조사를 마침
- 2010년 백제역사재현단지 완공과 함께 대백제전의 개최 희망
- 대백제전과 미래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문화관광 상품개발

5) 백제문화 세계화의 노력

- 52년 동안 단독 혹은 공동개최 등 공주와 부여에서 격년제로 개최 되던 백제문화제를 2007년 통합
- 2007년 백제문화제 통합 첫해로, 백제문화 세계화 원년의 해로 40억의 예산 배정을 통해 축제의 외형적 규모와 내형적 질을 높임
- 공주의 세계역사도시연맹 가입을 위한 노력
- 부여와 공주의 유네스코 세계역사유적지구 등재를 위한 노력
- 2010년 중국 상해박람회와 일본 평성천도 1,300주년 기념행사와 연계를 통한 행사의 국제화

(4) 균형발전을 위한 대백제전

1) 접근성 향상

- 공주와 부여의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도, 시, 군의 기초 인프라 투자

2) 인프라 및 도시 정비

- 공주와 부여 지역 외관, 숙박시설, 가로 정비 등 도시정비

3)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한 지역산업발전

- 농업을 근간으로 하는 백제고도의 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 풍부한 인력과 문화콘텐츠를 바탕으로 문화와 창조산업 육성

4) 충남 방문의 해

- 충남방문객의 70%를 차지하는 해안관광객이 2007년 태안기름유출사태로 인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충남관광 활성화와 지역민의 사기 진작 필요

(5) 세계화, 국제화를 위한 대백제전

1) 국제적 랜드 마크

- 위략적 테마파크가 아닌 시대적, 역사적, 교육적 의미가 있는 랜드 마크로서의 백제역사재현단지 위상 정립

2) 세계적 이벤트

- 일회성, 전시성, 정치성 행사가 아닌,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백제문화제 세계화의 전기 마련

- 한국, 아시아를 넘어 세계와 교류하는 이벤트

3) 새로운 한류, 백제문화

- 한류의 원류인 백제문화를 경쟁력 있는 세계문화상품으로 전환
- 해상왕국 백제의 면모, 무령왕릉, 금동대향로, 황금사리병 등 백제 문화재의 예술적 가치 드높임
- 고대부터 한중일 교류 및 문화의 중추적 역할을 한 백제의 위상 재조명
- 2007년 제53회 공주부여 통합백제문화제에는 프랑스, 일본 등 7개국 17개 단체 524명이 참여해 국제행사로서의 면모를 보여줌
- 중국 장수성, 일본 나라현과 문화교류 및 문화관광 협력을 약속했으며, 일본 왓소 축제와는 MOU체결

(6) 백제부활을 위한 대백제전

1) 대백제국 선언의 해

- 역사 속으로 잊혀진 해상왕국, 문화왕국으로서 백제의 실체 부각

2) 유네스코 등재 결정의 해

- 2010년 6월, 공주와 부여의 유네스코 문화유산등재 결정이 됨

3) 백제역사재현단지 완공의 해

-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한 백제역사재현단지 완공

III. 2010 대백제전을 통한 공주시 관광인프라 구축방안

1. 관광인프라 구축방안

1) '2010 대백제전'대비 공주시 대백제전팀 법인화 (가칭 '2010 대백제전 사업단')

(1) 2010 대백제전 사업단을 법인화하여 대백제전의 준비와 행사효과 극대화

- 2010 대백제전 사업단은 법인화하여 전문 인력 확보
- 시기별로 전담인력 확대
- 2008년에는 1~3인 정도로 운영
- 2009년에는 3~5인 정도 행사 전담 (공주시 재정여건 등 감안하여 진행)
- 2010년 행사시기까지 기존 전담인원을 주축으로 부서별 지원계획
- 2009년부터는 충청남도, 부여군의 행사 담당인력들과 유기적인 네트워크
- 공주시의 지원 전담부서는 관광과에서 맡되 직원 1인을 전담배치
- 민간전문가 계약직 1~2인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
- 행사전담팀은 행사의 성공을 위한 시기별 준비와 프로그램, 공주시 관광인프라구축 및 관광수입창출방안, 관련예산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함

2) 기존 공주시 사업과 연계한 ‘2010 대백제전’ 준비

- (1) 기존 공주시 사업은 공주 역사문화 및 자연유산을 활용한 공주역사예술도시 정비, 공주관광단지정비사업, 고마나루 명승지역 개발 사업 등이 진행
 - (2) 기존 진행사업 중 ‘2010 대백제전’과 연계하여 같이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논리 확보 후 예산 등을 중앙정부나 충청남도로부터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
 - (3) 충청남도가 2008년 4월 8일 확정된 지역균형발전 5개년 사업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충청남도 서남부권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792억원 투입 예정. 국비 1,452억원, 도비 1,452억원, 시·군비 1,357억5,000만원, 민자 등 기타 531억5,200만원 예정.
 - 5년간 전체 48개 사업 추진, 4792억200만원 예정
 - 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태안 등 8개 시군의 성장동력사업에 투자
 -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각 시군이 스스로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성장지원형 재정지원사업에 중점
 - 공주시는 2008년 충남도로부터 약 60억원의 예산 지원 지난 2월 확정
 - 지역균형발전 5개년 사업 예산으로 공주문화관광지 조성사업 지원예정
- ## 3) 체류형 관광객, 관광환경 개선 및 인프라 확장을 위해 신규 숙박촌 조성

(1) 신규 숙박촌의 성격은 백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형태의 문화체험 숙박촌으로

- 전국 최초의 백제저자거리를 조성하여 백제문화체험과 숙박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성
- 사례1: 영주의 선비촌



○ 선비촌 개요

- 영주시는 순흥면 소수서원 옆에 선비촌을 만들어 2004년 7월 개장
- 선비촌은 1만7400여평의 터에 기와집 7채, 초가 5채와 누각, 물레방아, 물레방아, 저잣거리, 대장간 등을 갖추고 있음.
- 건물은 영주시 위산면의 두암고택 등을 본 떠 만들어 조선시대 전통마을의 냄새가 물씬 풍김

- 한옥과 초가의 20여개 방은 숙소로 개방, 관광객의 불편을 덜기 위해 수세식 화장실과 샤워장 갖추
- 저잣거리에서 식사를 하고 서예, 한문, 다도와 짚신삼기체험 가능

○ 선비촌 프로그램



- 선비촌의 프로그램은 문화행사, 교육마당, 문화체험, 숙박체험, 관람 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음

예절/인성 교육

현재위치 : Home > 교육마당 > 예절/인성 교육

선비촌 유교문화학교

선비촌 유교문화학교는 한국 최고의 유교 및 예절·인성 교육센터이자 유교문화와 예절문화의 배움과 보급의 장소로 인성교육을 통한 현대인들의 심신수양을 도모한다.

어린이 예절교실 교육프로그램

교육명	교육내용
선비촌견학	선비촌을 견학시켜 조상의 얼과 우리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모
어린이 명심보감	어린이들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어린이 명심보감을 통한 유교교육
전통예절	큰절, 평절연습, 한복의 명칭과 입는 법, 전통예의 습관교육
소고강습	고유악기의 종류와 장단을 숙지, 소고의 기본동작 연습
다례실습	고유의 전통차 예절법 습득
민속놀이	전통 민속놀이 유래와 놀이방식 습득
식사예절	식사와 관련된 예절을 체계적으로 교육



<교육마당의 유교문화학교 사례>

한옥 숙박체험

현재위치 : Home > 선비촌 숙박체험 > 한옥 숙박체험



대청마루에 기대앉아 푸른 하늘 떠받친 첩첩 산줄기를 바라보는 여유
비오면 문턱에 기대앉아 세상을 삼킬 듯 쏟아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자연의 소리에
묻혀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보세요.
선비촌내 한옥에서의 숙박을 통하여 옛 선조들의 주거문화를 체험 할 수 있습니다.

체험기간

상설

체험내용

선비촌내 한옥에서의 숙박을 통하여 옛 선조들의 주거문화를 체험 할 수 있도록 함

숙박체험집

- 고급형 : 해우당 고택, 인동장씨 종가



고급형 내부



영주특산물



주전부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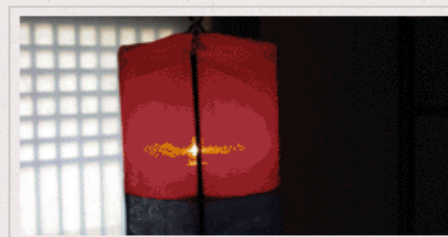
편의용품

체험료

- 고급형 : 4인실(140,000원)
(아침8시30분부터 반가음식(조식)제공, 영주특산물 인견잡옷 비치(하절기), 야간 주전부리 제공
(영주 사과, 풍기 인삼식품 등), 영주 특산품 증정
2인실(70,000원)
(영주 특산품 증정 제외)
- 일반형 : 4인실(70,000원), 2인실(45,000원)
- 독채형 : 김상진가(150,000원)

공통제공

- 윗놀이, 장기, 바둑, 승경도 놀이 등 야간 민속놀이 용품 제공
- 개인용 청사초롱 제공
- 선비혼 퍼즐 제공



<숙박체험 사례>

○ 외국인 관광객 유치 현황

- 선비촌은 영주內 외국인의 농촌체험 관광지로 급부상

<경북도 외국인 농촌체험으로 소득 늘린다>

[연합뉴스] 2008년 03월 06일(목) 오후 05:15 가 가 이메일 | 프린트 (대구=연합뉴스) 김효중 기자 = 경북도가 외국인을 상대로 한 농촌체험 관광으로 농외소득 증대에 본격 나섰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2007년에 감와인, 한지와 같은 농촌지역의 독특한 향토 자원과 전통 문화 등을 체험하기 위해 '농촌 관광'을 위해 지역을 찾은 외국인인 2만3천390명으로 2006년의 1만7천592명보다 33%가 증가했다.

농촌체험 관광지별로는 안동(한지공장)이 1만4천360명으로 가장 많고 영주(선비촌) 4천750명, 의성(애플리즈) 2천800명, 고령(개실마을) 980명, 청도(와인터널) 500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외국인 농촌체험을 통한 농외소득을 더욱 늘리기 위해 권역별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보강하는 한편 외국인이 가고 싶어하는 명소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는 봄(꽃), 여름(바다), 가을(단풍), 겨울(눈)을 테마로 한 '4계절 농촌체험' 상품을 만들어 경북을 대표하는 축제와 연계하는 등 외국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선다.

<연합뉴스 보도내용>

○ 영주 선비촌의 사례로 본 공주시의 시사점

- 영주시는 조선시대의 문화를 체험 하면서 숙박하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고급형은 고가의 고급숙박체험상품으로, 일반형은 비교적 저렴하게, 독채형은 펜션식으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음
- 공주시는 국내 유일의 백제문화체험 숙박상품으로 운영되도록 시설 조성하고 프로그램 제공
- 부여군의 백제역사재현단지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성
- 공주시 백제문화제와 연계하여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마다 확장. 전체적인 조감도는 있어야 함
- 국내 방문객과 외국인 방문객을 아우르는 체험시설과 프로그램으로 준비

4) 기존 숙박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조성

(1) 기존 숙박 인프라를 리모델링: 템플스테이

- 백제의 문화를 공주에서 체험해 볼 수 있는 템플스테이
 - 조계종의 사찰을 활용한 기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과 가격을 대상층에 따라 다양화
 - 동학사와 갑사와 같은 조계종 계열의 사찰은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조계종외 다른 종단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유도. 홍보 등 공주시에서 지원 등 고려
 - 현 템플스테이 가격은 성인 40,000원, 중고생 30,000원, 초등학생 20,000원으로 초등학생이 있는 한 가족이 방문하면 100,000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비싼 편임. 가족 단위의 방문객에게는 가족요금(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안 검토
 - 또한 10명이하의 방문객의 경우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데 것을 적은 단위의 방문객일 경우에도 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 있음



<갑사 템플스테이사업단의 모습>

(2) 기존 숙박 인프라를 리모델링: 종택스테이

○ 종택스테이 프로그램 발굴

- 공주시에 있는 고가옥을 대상으로 종택스테이 (고가스테이) 프로그램 개발
- 종가집에서 할 수 있는 예절교육, 족보, 다도 등 체험

○ 사례2: 안동의 종택스테이

- 안동시의 종택을 활용한 ‘종택스테이’는 역사적인 건축물을 활용하여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례
- 안동시에는 역사적인 종택들이 있는데 이러한 종택중에서 범홍동의 고성 이씨 종택, 도산면 농암종택 등 5개 고택(古宅)이 대상
- 종택에서 숙식하며 유교문화를 맛볼 수 있는 ‘종택스테이 (stay)’ 프로그램은 고가옥에서 하루밤을 보내며 지게지기, 장작패기, 나물 뜯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음
- 기존 종택은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편의시설이 불편하기에 안동시는 이들 가옥에 샤워장과 현대식 화장실을 설치
- 하회마을에는 동네를 둘러볼 수 있는 우마차도 운행.



<안동의 퇴계종택 홈페이지>

퇴계종택

- ▶ 위치 :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도산서원 인근)
- ▶ 전화 : (054) 855 - 8332
- ▶ 홈페이지 : <http://www.yulwhsa.co.kr>
- ▶ 체험내용 : **활인심방** 수련, **성학십도** 학습, 퇴계시 감상, **종손과의 대화**, 인성 교육장, 뿌리 교육장
- ▶ 수용인원 : 200명
- ▶ 종택과 고가 체험을 하러 오시는 분에게 원하신다면 퇴계선생의 건강 비법이었던 **활인심방(活人心方)** 수련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 * 수련장소 :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481-2 열화(悅和)
- * 수련기간 : 1박 2일(24시간)

농암종택

- ▶ 위치 :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 ▶ 전화 : (054) 843 - 1202
- ▶ 홈페이지 : <http://www.nongam.com>
- ▶ 체험내용 : 트래킹, 등산, 탁본, 다도, 천렵등

<퇴계종택과 농암종택 관광체험 프로그램>

5) 공주, 부여 지역 외관, 숙박시설, 가로 정비 등 도시정비

(1) 도시경관, 조경부문

○ 야경

- 조경은 최근 도시경관조성과 관광상품의 중요한 분야로 인식
- 한국관광에 있어 취약한 부분 중의 하나가 밤에 할 거리가 거의 없다는 점
- 최근 많은 지자체들이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과 시설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주제가 야경 (夜景)의 관광상품화
- 공주시는 주요시가지와 공산성, 백제대교 (금강교) 등에 야경 조명 설치하여 관광객과 시민 유치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들이 다리와 거리 야간경관 연출노력

○ 사례3: 서울특별시 다리와 거리 활용한 야간경관 연출노력

- 서울특별시는 낮보다 밤이 아름다운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의 경우 2003년 반포대교, 한강대교, 잠실대교, 양화대교, 당산대교, 광진교 등 21개 다리의 야간조명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내외국인들의 눈길을 끄는 서울의 명물로 부상
- 신촌, 이태원, 영등포 등 시내 주요 거점을 야간 경관지구로 지정해 관광명소로 만들 계획
- 관광객과 시민들이 많이 찾는 청계천에도 가로등, 수목등, 수중조명 등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
- 서울특별시는 공공시설물 뿐 아니라 민간 대형건축물에도 야간조명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여 2010년까지는 서울에 야간 관광문화를 정착시킬 계획



<올림픽대교의 야경>



<남원시의 시가 야경조성 모습>

6) 예산확보방안: 공모전 선정을 통한 예산 확보

(1) 공모전을 전담할 전문 담당인력 확보

정부 공모전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모든 분야 총괄)을 전담하는 담당자 1인 확보, 금산군은 2007년 공모전을 통해서 약 200억원의 예산 확보

○ 사례4: 건설교통부의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사업 개요

- 건설교통부는 2008년 2월 20일 교수·연구원·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위원회”를 거쳐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도시 6개, 시범마을 20개를 선정하여 금년 중 관련 예산 지원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도시로는 충남 금산군을 비롯하여 제주도 제주시·전남 여수시·경기 과천시·광주광역시 북구·전북 무주군 등 6개 지자체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선정
- 이들 6개 도시에 대해서는 충남 금산군에 18억원, 제주시 15억원, 나머지 4개 지자체에 각 13억원씩 총 85억원이 지원

- 시범도시로 선정되지 못했지만 사업계획이 비교적 우수한 6개 도시에 대해서는 시범도시의 높은 경쟁률을 감안하여 이들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계획비용 지원금을 사업별로 3억원씩 18억원을 지급
- 시범도시의 경쟁률: 7.8 : 1(47개 신청사업 중 6개 선정)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은 이번이 200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에 대한 주민과 지자체의 관심유도 및 조기정착을 위해 추진
- 「시범도시」사업을 통해서는 지자체가 경쟁력 있는 요소를 발굴하여 이를 토대로 특화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유도
- 사례5: 건설교통부의 살고싶은 마을만들기사업 (시범마을) 개요
 - 시범마을은 부산·경기 각 3곳, 서울·대전·광주·경북 각 2곳씩, 대구·인천·강원·충북·전남·전북 각 1곳씩 선정되었으며, 이들 시범마을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1~2억원씩 차등 지원된다.
 - 「시범마을」사업을 통해서는 주민이 동(洞)단위 이하의 생활권을 대상으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스스로 마을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유도
 - 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지금까지의 관이 주도하고 시가지 팽창 위주로 수립·추진되던 도시계획이 주민 주도 또는 주민의 적극적 참여하에 주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도시계획으로의 전환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1> 선정된 시범도시 사업과 예산지원액

지자체	사업명	예산 지원액
충남 금산	소통과 어울림의 중부권 문화배움터 만들기 -금산 다락원 기능 확충 사업-	18억원
제주 제주	多문화를 포용하는, 어디에서도 배움이 있는 교육도시	15억원
전남 여수	바다가 예쁜 美景 여수만들기	각13억원
경기 과천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기반조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지구온난화 대응 도시조성	
광주 북구	도심속 「天·地·人」 문화소통길	
전북 무주	생애.ing 행복실감도시, 무주	

<표 2> 선정된 계획비용도시 사업 (예산지원액 3억원 균등)

지자체	사업명
경남 창원	생태탐방 자전거 도로 조성
광주 동구	21C New-Town 생태적 가로환경 조성 사업
경남 거제	세계적인 해양관광휴양도시 육성을 위한 지세포만 해양관광거점지역 개발
경남 진해	진해시 서부권 도시 재정비를 위한 벚꽃 Art Fair City 조성
전남 영암	청정자연과 역사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Green 영암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경북 포항	해양경관을 고려한 북부해수욕장 커뮤니티 공간 조성 -Coastfront & Sunlight(바다와 빛) 공간 조성

<표 3> 선정된 시범마을 사업 (예산지원액 1~2억 차등 지급)

지자체	사업명
전북 전주시	전통 향교마을 가꾸기 2단계사업
부산 금정구	역사와 생태 되살림을 통한 산상마을 만들기
대구 북구	주민참여형 친환경 수변공원만들기 -침산동 두물머리습지 재활력 프로젝트
인천 부평구	주민과 함께하는 부평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광주 광산구	첨단 주민이 하나되는 "가족, 이웃,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경북 김천시	아이들의 웃음이 넘치는 아파트 골목 만들기
대전 서구	"열린 공간" 정뱅이 미래 역사문화마을 만들기
전남 순천시	기존도심 재생을 위한 천태만상 마을 만들기
광주 남구	굴뚝연기 속에 피어나는 초록감성 야생화가 있는 송암동 만들기
경북 상주시	철로변 녹색공간 조성사업
대전 중구	무수천하 전통테마마을 조성
경기 시흥시	일터, 쉼터, 놀이터로 어우러지는 매화동 호조들녘 만들기
경기 안산시	중앙동 상가거리를 걷고 싶은 문화의 거리로!
충북 청주시	완충녹지 생태공원화 사업
서울 금천구	걷고 싶은 마을, 함께하는 자연
서울 마포구	지역발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살고 싶은 망원마을 만들기
부산 해운대구	복지네트워크, 자연친화 생태마을 조성
경기 수원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에코에듀빌리지' 만들기
부산 영도구	Happy 상리마을 만들기
강원 속초시	속초 청대산 녹색체험만들기 시범사업

IV. 결론

‘2010 대백제전’은 공주시에서 특히 부족한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메가이벤트의 효과가 경제성과 지역홍보 효과임을 감안한다면 공주시는 이러한 메가이벤트 효과에 덧붙여 지역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큰 행사들이 거쳤던 시행착오를 이번 행사에서는 줄여야 하는데 체계적인 행사준비를 위해서는 준비팀을 법인화하여 민간전문가가 행사를 전담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금산인삼엑스포 행사를 운영하는데 많이 지적되었던 충남도와 지자체간의 네트워크의 효율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공주시에서 먼저 전담사업단이 법인화되어 구성되면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준비하고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체류형관광객을 위해서 조성해야 할 신규 숙박촌이나 기존 숙박인프라를 리모델링하는 부분도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 진행되었던 메가이벤트의 취약부분중의 하나가 행사기간이 끝난 후의 행사효과의 지속화가 되지 않는 부분도 공주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극복해야 할 또 다른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주시의 도시경관 정비도 행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경관부분 중 야경부분은 특히 중요한 사업이다. 최근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공모하는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적극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제안된 부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2010 대백제전’은 공주시 관광의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다.

제2주제

지방중소도시의
대기업 유치방안

소진광

(경원대학교 교수)

지방중소도시의 대기업 유치방안

소진광 | 경원대학교 교수

I. 서론

집적경제를 추구하는 기업의 입지행태는 흔히 외부효과의 관점에서 설명되어 오고 있다. 기업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확보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기존 집적지를 중심으로 입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밀지역과 과소지역이 발생하고 이는 각각 도시문제와 낙후지역문제를 유발한다. 이러한 지역격차는 궁극적으로 국가통합을 저해하여 막대한 정치비용을 수반한다. 과밀지역 문제를 해소하고 낙후지역에서의 경제활동을 조장, 촉진하여 지역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부개입이 가능할 것이다. 과밀지역의 기업을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식과 낙후지역에서의 경제활동 지원과 창업촉진이 그것이다. 과밀지역으로부터 낙후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는 정부의 정책은 개별 기업가의 공간선호를 정확하게 판별하고,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별 기업가의 공간선호는 단순히 기업가의 취향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윤창출 가능성을 포함한 기업환경에 의해 구조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과밀지역에서의 이윤창출 가능성을 증가하는 기업환경을 낙후지역에 조성하거나 기존 입지에서 낙후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입게 되는 이윤손실분을 보전할 수 있는 특혜를 제공하여야 기업은 이전할 것이다. 이 경우 과밀지역에 입지한 기업은 과밀로 인한 집적불경제 혹은 이전으로 인한 추가비용부담과 다른 지방 혹은 낙후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추가이윤 혹은 혜택을 비교하여 입지이전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기업의 입지이전은 단순히 '어디서'라는 장소의 선택이 아니라 생산요소의 결합 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경제활동과 공간은 서로 맞물려 있어서 경제활동이 새로운 공간을 형성하

기도 하고 이미 형성된 공간에 의해 경제활동이 파생되기도 한다. 즉, 경제활동의 공간적 속성은 인구(노동력), 자본, 정보 및 의사결정 등과 같은 생산요소의 흐름현상(flow)으로 파악되는데 각각의 생산요소가 선호하는 흐름방향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들 흐름의 주체는 한편 공간형성적(space forming)이고, 다른 한편 공간파생적(space contingent)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공간질서를 만들기도 하고 소극적으로 기존 공간질서에 의해 구속받기도 한다(Friedman, J., 1972). 이 경우 이윤 극대화를 도모하는 경제인이라면 이미 조성된 공간에서의 집적이익을 추구하여 경제활동의 비용을 외부화¹⁾ 하려할 것이다.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산업입지정책은 낙후지역에 경제활동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러한 외부경제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어왔다. 산업단지 개발, 도로 개설, 상·하수도 시설 설치 등 사회간접자본 형성이 여기에 속한다.

다른 한편 기업은 기존 입지가 이미 과밀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속하지만 그러한 지역에서의 집적경제수준을 능가하는 다른 지역이 확보되지 않는 한 기업이전을 꺼려할 것이다. 낙후지역의 경우 집적경제가 미미하여 공간파생적 기업유인정책은 많은 비용을 수반한다. 또한 정부정책으로 건설된 산업단지라 하더라도 나중에 입지하는 기업이 더 많은 외부효과를 얻게 되어 기업유치가 쉽지 않다. 이러한 외부효과는 노동력, 자본, 정보, 의사결정 등 유동적 생산요소의 흐름현상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외부효과의 장소적 특성을 경제공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제공간과 경제활동의 유형은 지역격차인식과 연계되어 있다.

지역간 경제격차는 경제활동과 경제공간과의 상호작용 결과이고, 이러한 상호작용과정은 개별 기업의 입지행태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산업입지는 인간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발전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무엇을 얼마만큼', '어떻게',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어디서'라는 공간문제를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어떠한 공간조건에서 가능한 경제활동의 내용과 규모를 분석해낼 수 있다면 그와 관련한 공간변수, 예를 들면 도로, 항만, 상하수도, 주택, 공업용지를 조합함으로써 경제활동의 새로운 내용, 규모를 유도해낼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미래 특정의 발전현

1) 외부화(externalization)란 남의 노력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경제적 이득은 비용을 수반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인데 남이 지불한 비용을 통해 이득을 취했다면 그러한 이득에 상응한 비용을 남에게 전가(외부화)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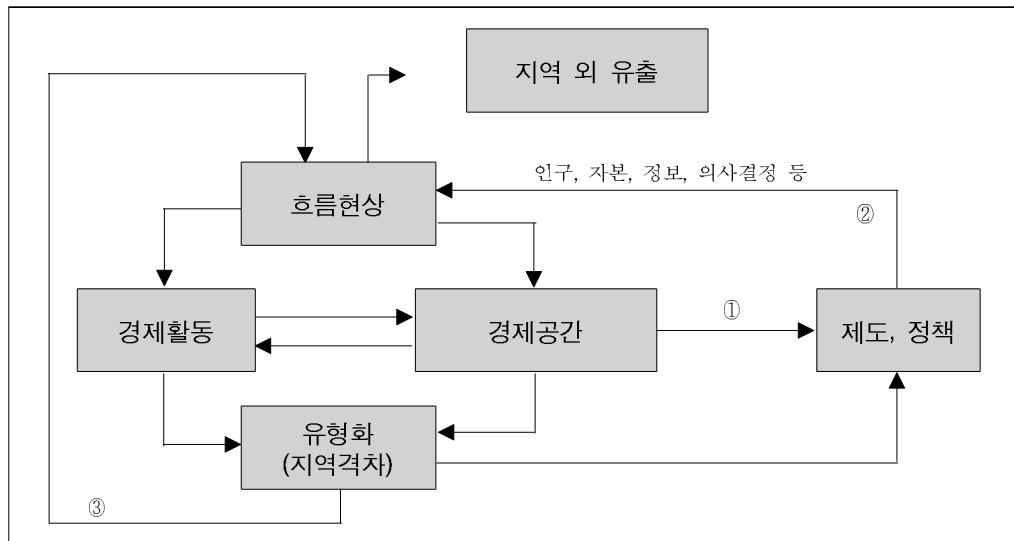
상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변수를 조작하는 정부정책은 과밀지역문제를 해결하고 과소지역 혹은 낙후지역에서의 외부효과를 형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개별 기업의 공간선택 행태와 한계를 설명하고, 지방 중소도시에서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개별 기업의 공간선택 행태와 한계를 설명할 수 있으면 기업이전 혹은 기업 유치와 관련하여 국가 혹은 지방정부에서 사용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II. 대기업을 입지이전 행태특성

1. 지역경제의 작동 체계

집적효과는 인구, 자본, 정보 및 의사결정과 같은 유동적 생산요소의 흐름방향과 속도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러한 유동적 생산요소는 특정 공간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경제활동 여건을 조성하게 된다. 생산요소의 흐름현상이 일정 시점에서 특정의 유형, 즉 지역경제의 경관차이(지역격차)로 인지되고, 이것이 규범적 질서를 통해 투영될 때 문제점이 도출되며, 이를 개선 내지 완화, 혹은 극복하기 위해 제도와 연계될 때 이들 인구, 자본, 정보 및 의사결정의 흐름방향과 속도는 새로운 지역경제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즉, 경제변동과정과 경제활동패턴은 상호작용관계에 있다(Healey and Ilbery, 1990:3). <그림 1>은 이러한 지역경제의 작동체계를 도식한 것이다.



<그림 1> 지역경제의 작동체계와 지역격차

<그림 1>에서 ①의 과정은 직접적인 공간정책, 즉 토지이용계획, 산업단지의 조성, 도로건설 등 기반시설계획 등을 나타내주고 있고, ②의 과정은 간접적인 공간정책으로 종종 산업부문정책 혹은 비공간정책(aspacial policy)의 성격을 띠고 있다. ③은 제도권 밖의 비공식분야로서 경제활동의 구조적 틀인 사회체계의 탄력성과 관련되어 있다. ③의 과정은 통상 시장원리(market principle)에 의해 작동된다. <그림 1>에서 지역의 경제적 발전은 인구, 자본, 정보, 의사결정 등 경제활동에 유리한 유동적 생산요소의 흐름으로 설명될 수 있다.

지역의 발전을 어느 특정 시점에서 파악하고자 할 때, 그 분석대상은 경제활동과 경제공간간의 상호작용으로 인지되는 '유형화'에 초점을 두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유동적 생산요소의 흐름방향과 속도를 나타내줄 뿐, 미래의 상태를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어느 지역의 경제를 논할 때, 미래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잠재력'과 현재의 경제력을 구분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어느 특정 시점에서의 지역격차는 유동적 생산요소의 흐름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어느 지역의 경쟁력은 미래 상태를 예측하기 위한 노력에서 확인될 수 있는 만큼, 경제활동을 통해 결합하게 되는 유동적 생산요소의 흐름방향, 그리고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2. 기업의 입지행태 특성

기업의 입지행태는 지역격차와 상호작용관계에 있다. 지역격차의 발생원인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공존한다. 유동적 생산요소를 끌어들이 수 있는 입지인자의 공간분포 차이도 지역격차를 유발할 수 있는 한 원인이고 생산성이 높은 혁신도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격차를 유발한다.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를 구축하여 지역격차를 완화하려는 정책 역시 경제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혁신 발생 확률을 높이며, 기술혁신의 채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일찍이 이중환 선생(1690-1752)은 살만한 곳을 가리는데 있어서 지리(地理), 생리(生利), 인심(人心) 및 산수(山水)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리와 산수는 물리적 삶의 조건을, 생리는 경제 환경을, 그리고 인심은 오늘날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속하는 인간관계의 질적인 측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장소를 선택하는 기준은 장소선택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공통점은 모두 인간정주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기업의 공간선택 논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기업이라고 해서 경제적 요인만을 고려하여 공간을 선택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의 공간선택 요인은 물리적 조건, 토지, 노동력, 자본 등 생산요소, 시장, 기술, 정부정책, 삶의 질 및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기업의 공간선택 동기는 우선 경제 환경의 네트워크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다. 기업은 '투입-산출'과정에서 다른 기업과 연계하여 분야별로 독특한 생산체계(production system)를 이룬다. 특정 생산단위(공장)와 전, 후방으로 연관되기 마련인 기업은 그러한 산업연계에 따라 생산함수를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공간선택은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기업이 선택 가능한 공간구조를 입지계층 측면, 생산체계 측면, 생산조직 측면에서 검토하고 총체적인 도시체계 관점에서 개별 기업의 공간선택 한계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기업을 유치하고자 할 경우 정책수단의 선택기준을 명확하게 해준다.

1) 입지계층과 기업의 공간선택

인구의 공간분포 집적정도에 따라 도시체계(urban system)가 달리 형성되듯이, 산업별 공간집적정도에 따라 개별 산업의 입지계층(locational stratum) 또한 달리 형성된다. 이러한 입지계층은 ①산업별로 독특한 공간필요조건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의 정착화경제(localization economies), ②계획체계기업(planning system firm)에 의한 다지역, 다제품생산활동(multi-regional, multi-product production activity)의 산업연계(industrial linkage), 그리고 ③조립생산활동을 중심으로 한 하도급(subcontracting)을 통해 형성되게 된다.

첫째, 정착화 경제에 의한 입지계층은 총량적인 인구규모로 분석되는 도시화경제(urbanization economies)와는 달리, 특정산업의 집적과 특정 공간의 필요조건을 연계시키려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정착화경제에 의한 입지계층은 도시체계와는 달리 산업별로 집적정도에 따라 다른 공간순위를 갖게 된다. 또한 대규모 계획체계기업들은 조직구성원리가 다중성을 띠고 있어서 기능별로 분산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데(Watts, 1987:58), 이 경우 기업측면에서의 기능별 우선순위에 따라 입지계층을 달리하게 된다.

둘째, 산업연계에 의한 입지계층은 생산 공정이 수직적으로 분리되고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가운데 형성된다. 생산조직과 생산체계가 산업기술공간화의 매개변수라면, 산업 연계(industrial linkage)는 이들 매개변수간의 상호작용과정에서 도출되는 공간 상부구조(spatial superstructure)이다. Taylor와 Wood(1973)는 산업연계를 '제조업체계의 분리된 기능요소간 물자의 흐름, 정보의 교환 등을 포함하여 모든 조작적 접촉'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실에 있어서 기업이 산업 활동과 관련하여 갖는 연계(linkage)는 매우 복잡하다. 즉, 생산 활동을 통해 공장은 새로운 연계패턴을 형성할 수 있고, 또 기존 연계패턴에 의해 생산 활동이 구속받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산업연계는 제조업체계를 서로 묶어주는 연결고리로 생각해 볼 수 있다(Bale, 1981:69).

한편 산업연계는 집합적으로 조직이 작동하는 공간을 정의해주는 조직 혹은 그 구성부분들의 모든 외부접촉으로도 생각해볼 수 있다(McDermott and Taylor, 1982:50). 따라서 산업연계는 입지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반 환경적 요인과 상호작용관계에 있으며, 산업입지패턴은 이러한 동태성의 한

단면으로 파악된다. 기술의 공간화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산업연계의 유형이 도출되어질 수 있다면 그들 각각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기술유형이 대응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셋째, 하도급에 의한 입지계층은 대규모 조립공장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하도급은 산업조직(industrial organization)과 입지(location)간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려할 때 중요한 요소이다. 하도급 관계는 대규모 계획체계기업(planning system firm)을 시장으로 하고 있는 소규모 시장체계기업(market system firm)의 공간선택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혁신클러스터 구축은 이러한 기업군의 수직적 연계와 수평적 결합을 통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하도급은 생산 공정의 일부가 다른 공장으로 이전되어 가는 산업연계의 특정 유형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산업연계의 특성을 분석하고 생산 활동의 분리정도를 밝히기 위해서는 하도급구조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Sheard(1983)는 일본의 자동차 부품산업을 조직 및 입지측면에서 분석하는 가운데 이들 부품산업들이 자동차조립업체와의 관계에서 일종의 계층적 하도급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즉 첫 번째 계층의 기업들은 자동차 조립공장과 직접거래하게 되고 이러한 첫 번째 계층기업들과 재도급(sub-subcontracting)관계에 있는 보다 작은 규모의 두 번째 계층기업이 있고 또 세 번째 계층의 기업이 있는 방식으로 하도급관계의 계층구조가 형성되게 되는데 일본의 자동차 부품의 경우 하나의 자동차 제조업체는 평균적으로 171개의 1차 계층 부품업체, 4,700여개의 2차 계층 부품업체, 그리고 31,600여개의 3차 계층 부품업체를 두고 있다 한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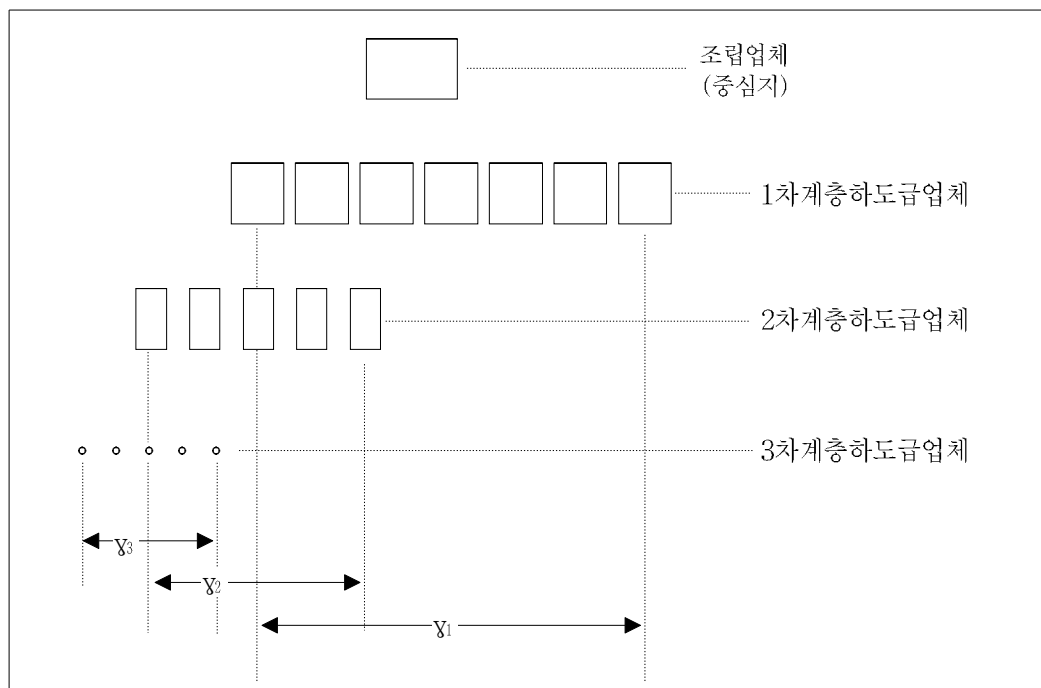
따라서 하도급에 의한 생산의 공간구조는 조립업체를 최고차위 중심기능으로 하여 이들과 후방 연계되어 있는 조립업체들이 저차위 중심기능을 이루면서 계층을 이루게 된다. 이들 계층적 공간구조의 특징은 조립업체를 중심으로 일종의 구심력에 의해 공간적으로 집중하는 형태로 나타난다(Scott, 1983:243).

2) 이들 하도급업체의 계층구조는 공장규모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1차 계층의 하도급업체는 평균적으로 300명 이상의 종업원을, 2차 계층의 하도급업체는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종업원을, 그리고 3차 계층의 하도급업체는 30명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우 계획체계의 기업과 시장체계의 기업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된다. 즉 1차 계층의 하도급업체는 2차 계층 하도급업체에 대해 계획적, 체계적 속성을 지니게 되나 전방 연계되어 있는 조립업체에 대해서는 시장 체계적 속성을 지니게 된다.

<그림 2>는 이러한 계층적 하도급관계와 조립업체를 중심으로 한 입지계층의 공간구조와의 관계를 개념화한 것이다. 여기에서 y_1 은 조립업체를 중심으로 1차 계층의 하도급업체가 입지할 수 있는 공간범위를, y_2 는 1차 계층의 하도급업체를 중심으로 이들에 후방연계되어 있는 2차 계층의 하도급업체가 입지할 수 있는 공간범위를, y_3 는 2차 계층의 하도급업체를 중심으로 이들에 후방연계되어 있는 3차 계층의 하도급업체가 입지할 수 있는 공간범위를 나타내준다.

이때 $y_1 > y_2 > y_3$ 의 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저차위 계층 하도급업체일수록 공간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대규모 기업일수록 입지선택의 폭이 확대됨을 알 수 있다. 즉 '투입-산출'과정에서 완제품조립과 관련한 생산 공정의 최종 수요적 제조업일수록 입지자율성이 증대되고 반대로 중간 수요적 제조업들은 이들과 전방연계되어 있는 기업의 입지에 의한 공간구속력이 크게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산업간 비교에 있어서 하도급 공간의 분산정도는 산업별 하도급관계의 규모 및 안정성에 따라 다를 것이다. 하도급 관계의 규모가 크고 안정되어 있으면 하도급 공간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하도급관계가 일시적이고 규모가 작으면 하도급업체들이 그들과 전방연계되어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난다(Karaska, 1967: 109-22).



<그림 2> 계층적 하도급관계와 입지계층의 공간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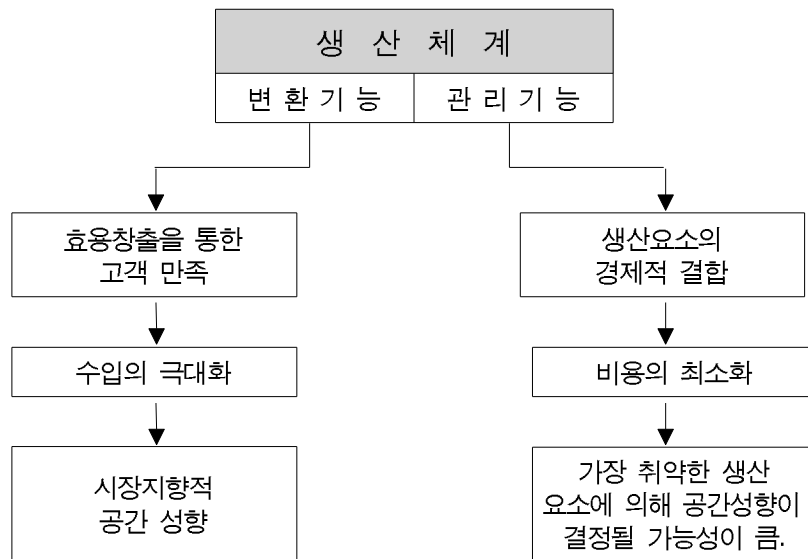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하도급은 시설규모, 작업의 성격 및 불확실성으로 인해 노동과정(labour process)의 일부를 외부화할 때 계층적으로 발생하며, 이에 따라 산업별로 독특한 입지계층을 형성한다. 이러한 입지계층을 따라 고차위 하도급업체는 저차위 하도급업체보다 공간선택의 폭이 넓고, 따라서 조직규모가 크며 최종 수요적 생산 활동에 근접하는 경향을 띤다.

2) 생산체계와 기업의 공간선택

생산체계(production system)의 공간적 속성은 투입요소의 경제적 조합과 관련한 비용최소화의 경향과 산출의 관리면에서 수입극대화의 경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통적인 입지이론에서 보면 수입극대화의 경향은 시장 지향적 산업에서 두드러진 특징이고 비용최소화의 경향은 그 밖의 모든 산업에서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생산체계(production system)는 그 기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품종과 생산량을 기준으로 생산체계를 다품종 소량 생산체계와 소품종 대량 생산체계로 나눌 때 전자는 고객의 만족을 우선할 것이기 때문에 시장지향적인 공간성향을 보일 것이고 소품종 대량 생산체계의 경우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인자는 생산비용의 최소화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반 생산요소의 구득가능성 및 결합방식에 따라 복잡한 공간성향을 보이게 될 것이다.

생산규격의 확정성을 기준으로 하여 생산체계를 수주생산체계와 계획생산체계로 나눌 때에도 마찬가지로 추론할 수 있을 것 같다. 수주 생산의 경우 고객과의 긴밀한 관계가 기업의 수입을 결정해 줄 것이기 때문에 기업으로 하여금 시장지향적인 공간성향을 띠게 할 것이고, 계획생산의 경우에는 안정된 시장(혹은 상당기간 일정규모의 시장)으로 인해 '투입-산출'의 변환과정에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이윤극대화라는 기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생산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비용 결정인자인가에 따라 복잡한 공간성향을 띠게 될 것이다. <그림 3>은 생산체계가 갖는 기능과 생산 활동별로 기대되는 생산 활동의 공간성향을 개념화한 것이다.



<그림 3> 생산체계의 기능별 공간성향

그러나 생산체계가 근본적으로 효용의 창출을 통해 생산과정에서의 경제성(비용의 최소화)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양자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경제활동의 공간성향은 기업의 전략에 따라 분명해 지리라는 기대를 해 볼 수 있다. 생산과정에서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변환기능에서의 공장설비 생산성향상과 연계되어 있지만 관리기능 측면에서의 생산요소 배합비율이 상대적으로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합리화전략으로 구체화 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합리화전략은 생산투입요소의 복합적인 상호작용과정에서 전반적으로 평가될 것이기 때문에 이의 결정인자는 생산요소 중 가장 취약한 인자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3) 생산조직 유형별 기업의 공간선택

생산조직 유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가 있을 수 있다(Chase and Aquilano, 1977). 첫째는 어떤 생산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따라 조직유형이 결정되고, 둘째는 작업의 흐름에 따라, 편의에 따라서 또는 기술적인 관련성에 따라서 조직내의 활동을 할당할 수 있으며, 셋째는 어떤 특정 활동이 관리자의 업무수행에 매우 밀접하게 관계될 때 이 활동을 조직설계에서 특별히 할당하는 경우가 있고(예컨대, R&D 활동이 중요한 TV 제조업의 경우 연구개발 부서를 제조부장 밑에

두는 경우임), 넷째는 주요 고객의 유치가 매우 중요할 경우 이 주요한 거래처의 수요요건에 맞도록 생산할 수 있는 공장조직을 별도로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임가공 형태의 부품업체의 생산조직이 이에 해당), 다섯째 내부통제의 관점에서 조직 내 권한의 균형적 할당을 고려한 조직설계가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총괄적 시스템사고에 의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된 기능을 행렬식조직(matrix organization)으로 만들어 내적 유대가 효과적으로 성취되게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생산조직은 이중 특정요소가 지배적인 형태로 특징지워질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이들 생산조직의 입지결정과정에서 그러한 특정요소의 장소적 의미가 중요하게 다루어 질 것이다. 이와 같이 생산 활동의 조직특성이 공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Galbraith(1967)는 계획체계기업(planning system firms)과 시장체계기업(market system firms)을 구분하고 있다.

소규모 기업과는 달리 대기업은 그들 자체의 분명한 공간패턴을 창출하고, 고용기회의 지리적 분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대기업은 경제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지역 간 노동시장의 질과 양을 변경시킬 수 있다. 이에 비해 소규모 기업은 경제 환경 변화에 적응해가야 하고, 자체 기능을 지역 간 전환할 수도 없으며(특히 단일공장 기업인 경우), 그 성장기복에 따른 지역경제의 영향폭이 미미하다. 특히 하나의 조립공장에 상당수의 부품공장이 연계되어 있는 경우, 조립공장의 의사결정은 그에 후방연계되어 있는 부품산업에 대해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들 계획체계기업들은 다양한 기준에 의해 조직되어 있으며 생산제품도 다양하고 기업자체의 공간조직을 형성하고 있어서 자체의 입지계층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계획체계기업들은 기능의 공간분업은 물론 다양한 제품을 여러 지역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공간선택의 폭이 크고 생산체계를 보다 유연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활동간 공간전환은 물론 지역 간 활동전환이 가능하여, 시장체계기업과는 달리 시장요인에 의해 밀리거나 끌리지 않고 스스로 계획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결국 시장체계기업과 계획체계기업의 구분은 단순히 조직규모를 기준으로 구분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산업별 시장규모 분석을 통해 상대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장체계기업은 기형성된 시장구조에 자신의 형태를 적응시키는 조직특성을 보일 것이고, 계획체계기업은 스스로 시장구조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조직특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계획체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다공장기업들은 자체공장의 공간계층을 통해 생산공정기술의 누적과정(filter-down process)을 보일 수 있는 반면, 시장체계공장의 경우 그만큼 새로운 생산공정도입이 어려워져 기계설비나 생산설비교체가 쉽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계획체계기업들은 나름대로 기업특성에 맞는 핵심지역을 형성하여 주위에 시장체계기업들을 끌어들이는 입지 유인력을 가지고 있다.

결국 새로운 생산공정기술의 공간화는 주로 계획체계기업들의 공간분업으로 구체화되고, 이 때 혁신의 전파는 계획체계기업자체에 독특한 입지계층(혹은 자체의 공간계층구조)에 의한 확산에 의해 주도되며, 이를 중심으로 시장체계기업들에 의한 전염확산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즉 새로운 산업기술은 도시화 경제의 관점에서 파악되는 도시규모분포의 계층확산과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착화경제의 관점에서 계획체계기업에 의해 형성된 산업별 입지계층에 따른 공간확산과정에 의해서 전파되게 된다.

계획체계기업들은 그들 다양한 작업을 관리하기 위해 그들 자체에 특유한 조직구조를 이루고 있고, 조직구성원리가 다중구조(multi-divisional structure)의 특성을 하고 있어서 기능별 조직부서, 지역별 조직부서와 함께 별도의 연구, 개발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Watts, 1987:58). 이에 비해 시장체계기업들은 그들과 전방연계되어 있는 주거래처를 관리, 연계하는 별도의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 시장체계기업과 계획체계 기업간의 상호작용은 하도급관계로 구체화되는 경우가 많다.

생산조직의 특성이 입지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논거는 여러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연구들은 대체로 외부요인을 생산 활동에 내부화하는 과정이 기업의 조직에 따라 다르다는데 착안하고 있다. 또한 기업조직과 관련하여 의사결정 권한의 배분구조와 입지변화와의 관계도 분석될 필요성이 있다. 문제는 산업기술을 수용하고 또 입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함수를 어떤 변수로 정의하느냐하는 것이다.

대규모 기업조직은 관련분야를 수직적으로 통합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다. 따라서 대기업의 조직은 영토분할(territorial divisions), 기능결합(functional integration) 그리고 생산제품이나 서비스별 관장업무(product/service divisions)를 혼합하여 구성된다. 이러한 조직 구성 원리는 대기업으로 하여금 자체 독특한 공간구조를 형성케 해 준다. 따라서 기업조

직의 규모에 관한 연구는 생산 활동의 공간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Averitt(1968)도 대규모기업에 해당하는 중심지기업(*centre firms*)과 소규모 기업에 해당하는 주변부기업(*periphery firms*)을 구분하고 있고, Holland(1976)는 산업전반적인 체제를 소규모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미세경제분야(*micro-economic sector*)와 대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중간경제분야(*meso-economic sector*)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Taylor와 Thrift(1983)도 대기업분야(*corporate sector*)와 소기업분야(*smaller firms sector*)를 구분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 사용된 용어는 다르지만 그 의미는 대체로 기업환경과 기업들의 상호 작용과정이 기업규모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즉 기업의 의사결정이 대규모 공간변화를 유발할 수 있어서 공간파생적인 면보다는 공간형성적인 측면이 강조될 경우 계획체계기업, 중심지기업으로 불릴 수 있고 이들 기업의 활동은 중간경제분야, 대기업분야를 그 무대로 하고 있다. 반대로 기업의 의사결정이 이미 형성된 공간구조에 의해 영향 받는 폭이 클 경우 그러한 기업은 시장체계기업, 주변부 기업의 특성을 보이고, 그 활동은 미세경제분야, 소기업분야를 주 무대로 하게 된다.

그러나 기업 및 산업조직과 경제활동의 입지와 관계는 어느 한 방향으로만 작동하지 않는다. 기업이나 산업이 입지해 있는 장소적 특성은 이들 기업 및 산업이 조직되는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거리에 있는 분공장은 보다 가까이 근접해 있는 분공장에 비해 보다 대형화되고 자동화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수직적 통합은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촉진될 수 있다. 즉 Scott(1987)는 주변지역이나 제3세계에 입지해 있는 분공장이 핵심지역, 핵심국가에 입지해 있는 분공장보다 수직적으로 통합되게 되는 경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대규모 기업조직에 있어서의 자본시장은 소규모 기업의 자본시장과는 완전히 다르다. 후자의 경우 금융기관의 분포와 행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요인에서의 구속력이 약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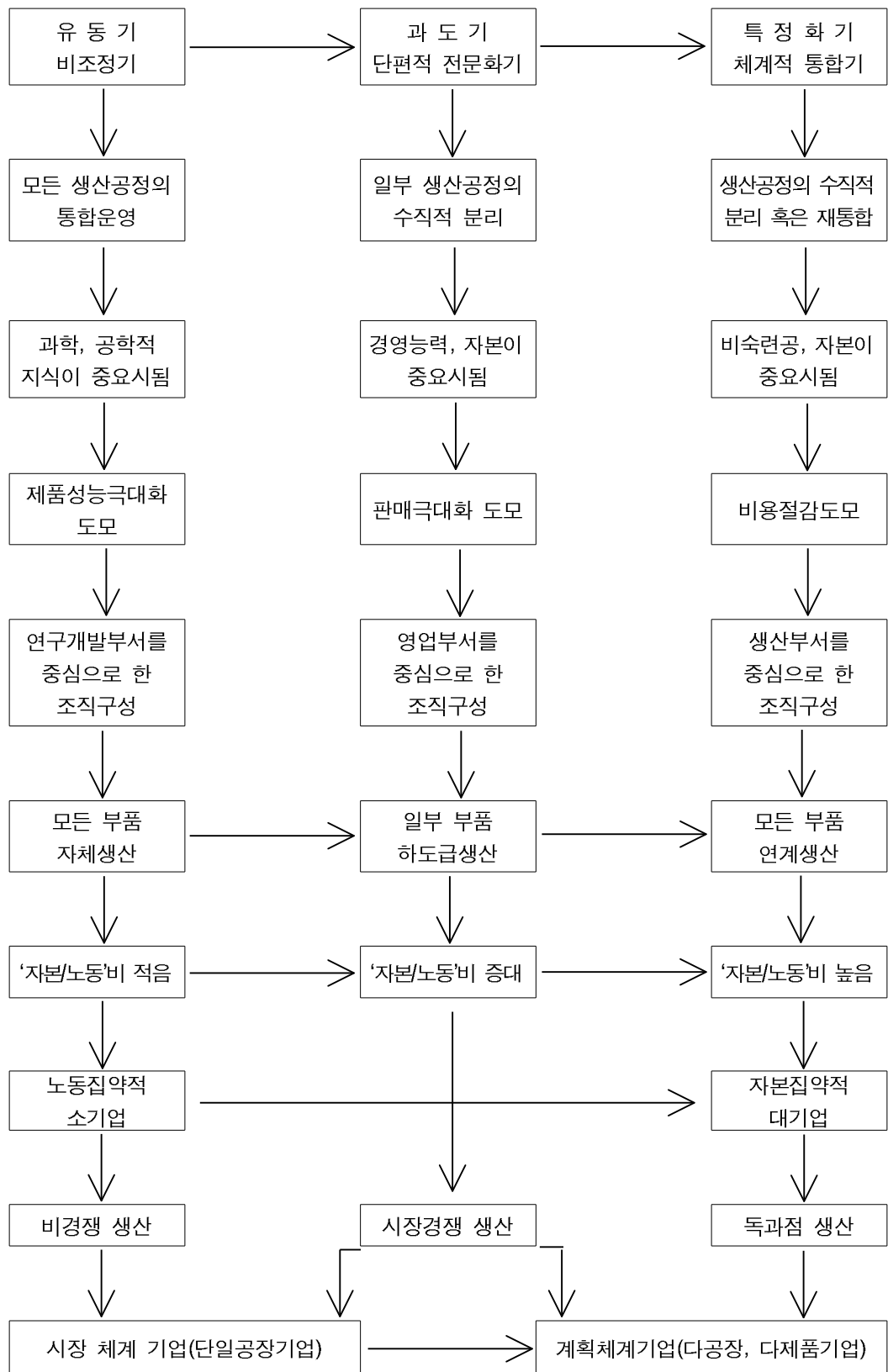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소규모기업에 비해 입지자유가 크다. 그리고 물자연계(*material linkage*)와 서비스 연계(*service linkage*)는 다공장기업에 속해 있는 공장에서 보다 장거리에 걸쳐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다공장기업의

공장들은 단일 공장보다 지역화 경의 영향을 덜 받을 가능성이 크다. JIT(동기 생산방식)체계의 도입 및 수직적 분리현상으로 인한 산업연계체계의 변화는 후방연계 기업들로 하여금 공간적으로 집중해야 할 필요성을 크게 하고 있다. 즉 JIT체계가 능률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와 하도급업체가 시장수요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필요한 경우 하루에도 몇 번씩 부품을 공급하기 위해 완성품 조립업체 가까이 입지하여야 한다.

한편, 공간집중화의 경향은 수직적 분리 현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Scott(1987:215-231)는 수직적 분리와 경제활동의 집적은 상호 보완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즉 수직적 분리현상은 외부거래량을 증대시키고 따라서 거래규모가 크고 거래비용이 많이 드는 기업들은 어느 한 장소에 모여들게 된다. 그 결과 그러한 집적지에 입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외부경제는 또 다시 수직적 분리현상을 자극하여 많은 기업들을 유인하게 된다. 이와 같이 수직적 분리현상이 증대되고 유연생산방식이 도입되게 되면 새로운 산업 공간(new industrial spaces)이 출현할 수 있다(Scott, 1988:171-86). 그러나 유연적 생산방식과 수직적 분리현상은 공간집중 뿐만 아니라 공간분산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상반된 주장은 기술변수의 주체, 즉 생산조직의 특성을 간과한데서 비롯된다.

결론적으로 기업은 그 생산조직특성에 따라 산업기술을 수용, 채택하는 방식을 달리하고, 그러한 기술을 사용하는 생산과정을 통해 독특한 생산 공간(production space)을 형성하는 '기술-공간'화의 매개변수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는 기술발달에 따른 기업의 생산조직변화를 예시한 것이다. 기술발달은 혁신단계에서의 유동기로부터 일부 전문화를 통해 과도기를 거쳐 모든 기술이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특정화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생산 공정의 통합, 수직적 분리 및 재통합의 현상이 나타나고, 생산조직은 연구개발 중심, 영업부서 중심 및 생산부서 중심으로 변화한다.

결국 기술발달의 초기단계에서는 '자본/노동'비가 낮은 노동집약적 소기업이, 그리고 특정화기에는 '자본/노동'비가 높은 자본집약적 대기업이 출현하게 된다. 노동집약적 소기업은 전방연계 기업(시장)에 종속되기 쉬워 시장체계기업으로, 자본집약적 대기업은 후방연관기업(대부분 부품공장)의 공간선택에 영향을 미쳐 계획체계기업으로 구분된다.



<그림 4> 산업기술발달과 생산조직 분기현상

3. 지방 중소도시에서의 대기업 입지 제약

흔히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 과밀현상이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한다. 수도권 과밀현상의 판단기준은 항상 균등한 국토공간분포였다. 즉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균등분포를 상정하고 그에 비해 수도권은 면적대비 인구나 각종 시설이 과도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간분포는 균등할 수도 균등해서도 곤란하다. 균등한 공간분포 상태에서는 각종 시설의 유지,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차위 서비스 기능을 공급할 수도 없다. 따라서 공간집적은 필연적이며, 공간집적으로 인해 또 다른 경제활동을 창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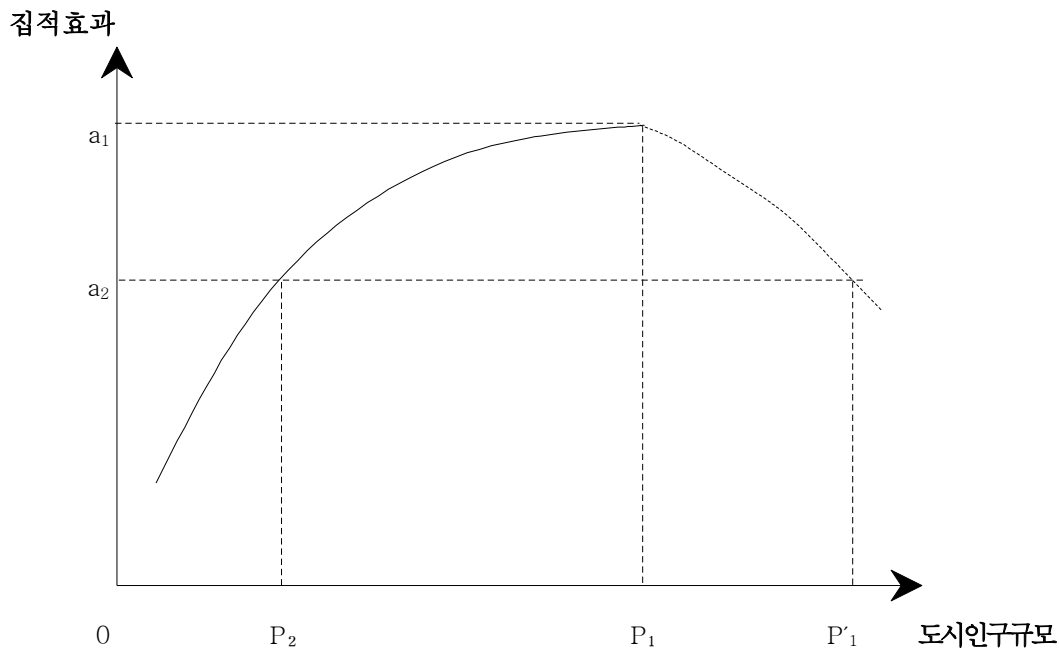
총체적인 집적효과는 인구집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도시화 경제(urbanization economies)라 한다. 도시인구가 늘어나면 노동시장도 커지고, 소비시장도 형성되어 기업환경은 개선된다. 또한 도시인구가 늘어나면 각종 편익시설이 들어서고 고차위 서비스 기능이 유입되어 생산 환경이 개선된다. 또한 도시인구가 늘어나면 그만큼 다양성도 증대되어 혁신발생 빈도도 증가하고 새로운 논리가 유입되기 쉽다. 이와 같이 도시인구가 증대되면서 조성되는 기업에게 유리한 환경은 개별 기업에게 외부효과를 제공한다. 즉 대도시에서는 투자자본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뿐만 아니라 전·후방 연관 산업이 발전하여 생산체계의 효율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한정된 공간에 인구와 시설이 과도하게 집적되다 보면 주택, 상·하수도, 교통 등 각종 공간문제가 발생하고 도시환경이 오염된다. 과밀 도시문제와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거나 극복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데 이러한 비용을 집적불경제라 한다. 따라서 도시의 인구규모는 집적효과와 집적불경제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도시인구규모가 늘어나면 집적효과도 증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찬가지로 도시인구가 늘어나면서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도 증대된다. 결국 도시인구가 늘어나면 집적효과와 집적불경제가 동시에 나타나는 셈이다. 그러나 도시인구가 일정 규모 이하로 늘어날 경우엔 집적효과가 집적불경제를 압도하여 전체적으로 집적효과가 증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정 규모를 능가하는 도시인구의 증가는 집적불경제를 급속하게 증대하여 전체적으로도 집적불경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가설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도시 전체

적으로 집적불경제가 나타나면 인구와 각종 시설이 도시를 빠져나오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개별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집적불경제로 인한 추가비용부담을 꺼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개별 기업의 이전행태는 국가 전체적인 도시체계 혹은 인접 국가의 경제 환경에 따라 다르다.

<그림 5>는 국가도시체계상에서 집적불경제와 기업의 공간선택한계를 나타낸 것이다. 실선으로 나타낸 집적효과 곡선은 인구규모가 늘어나면서 집적효과가 집적불경제를 능가하는 범위까지 나타난다. <그림 5>에서 도시인구규모가 P_1 에 이르면 집적효과와 집적으로 인한 불경제가 같게 되어 기업이 더 이상의 총체적 집적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된다. 이미 인구규모 P_1 의 도시에 입지해 있던 기업은 인구가 계속 유입되면서 총체적인 집적불경제를 느끼게 되지만 차하위 도시가 인구규모 P_2 수준인 도시체계상에서 P_2 인구규모의 도시로 이전하지 않을 것이다. 즉 P_1 인구규모의 도시에서 P_2 인구규모의 도시로 기업이 이전할 경우 $(a_1 - a_2)$ 만큼의 집적효과를 포기하여야 한다.

만약 P_1 의 도시인구규모가 P'_1 수준으로 증가하여 P_2 인구규모의 도시에 누릴 수 있는 집적효과와 같게 된다면 기업은 P'_1 인구규모의 도시에 남든지 아니면 P_2 인구규모의 도시로 이전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입지도 일종의 관성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전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상당한 집적효과의 순증을 확신하지 않는 한 기업은 이전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결국 총체적으로 집적불경제가 나타나고 있는 과밀도시에서도 기업은 빠져나오려 하지 않을 것이고 P_2 인구규모의 도시에 입지해 있는 기업은 P_1 인구규모의 도시에서 인구가 계속 유입되어 P'_1 수준이 되기 전까지는 그러한 도시로의 이전을 통해 집적효과의 순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P_1 인구규모의 도시는 계속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 우리나라 수도권에 입지한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수도권에서 집적불경제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여 수도권에 입지한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지 못하게 된다. 즉 국토공간상에서 수도권에서의 집적효과를 대체할 만한 집적공간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은 그 만큼 어렵다.



<그림 5> 집적불경제와 기업의 공간선택한계

Ⅲ. 지방 중소도시의 대기업 유치방안

1. 지방 중소도시가 대기업을 유치하려 할 경우 고려해야 할 점

기업의 공간선택(입지)은 전·후방 연관 산업의 생산체계, 관련 산업의 기술발달 단계 및 생산조직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대기업을 많은 후방연관산업과 연계되어 있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특히 대기업을 독자적으로 공간구조를 유도할 수 있는 전·후방 생산연계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어서 후방연관산업을 유인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속성을 먼저 파악하고 그러한 기업을 통해 지역이 도모하고자 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지방중소도시가 대기업을 유치하려 할 경우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떠한 업종이 지역특성과 어울리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산업별로 기술발달 단계가 다르고, 기술발달 단계별로 지방중소도시를 선택할 수 있는 기업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이다. 기술발달은 생산성을 증대시켜주지만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게 하여 고용창출에는 역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이 취약한 지방 중소도시가 무조건 노동집약적 산업의 대기업을 유치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하기란 쉽지 않다.

둘째, 지방 중소도시는 기업의 생산체제와 생산조직을 고려하여야 한다. 많은 경우 지방 중소도시가 기업을 선별적으로 유치하기가 쉽지 않다. 지방 중소도시는 우선 기업 활동에 대하여 외부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착화 경제(localization economies)의 관점에서 특정 산업에 필요한 생산체제와 생산조직을 연계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면 지방 중소도시도 산업클러스터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지방 중소도시가 기업의 생산체제와 생산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면 경제활동 기반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셋째, 지방 중소도시는 주변 다른 도시와의 역할분담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방 중소도시는 독자적으로 완결된 경제공간을 이루기가 어렵다. 집적경제 측면에서 다른 대도시와 비교 열세에 있는 지방 중소도시는 인접 다른 도시와의 역할분담을 통해 대기업을 필요로 하는 입지인자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 중소도시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세계화의 맥락에서 생산체제 및 생산조직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기업의 생산체제와 생산조직은 하나의 국가 단위로 작동하지도 않는다. 세계화는 경제활동 측면에서 국경을 초월한 생산요소의 이동을 촉진하고 있다. 국경을 전제로 한 소위 풍선효과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 셈이다. 따라서 지방 중소도시도 이제는 국내 다른 도시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적 네트워크를 통해 특정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 중소도시는 지역의 환경가치를 고려하여 기업을 유치하여야 한다. 뒤쳐져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장점은 앞선 자가 치룬 고가의 시행착오 비용을 답습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다. 환경은 더 이상 경제활동의 부산물이 아니다. 이제는 환경가치가 미래의 경제활

동을 유인하고 조율할 수 있는 척도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은 고도의 기술력을 소유한 노동력을 끌어들이고 자본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생산요소이다.

2. 지방 중소도시가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

기업은 생산요소의 집합체이다. 생산요소는 공간을 떠다니는 유동적인 것과 그렇지 못한 부동산적인 것으로 구분된다. 일정 장소를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일은 유동적 생산요소의 흐름방향을 조작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즉,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높이고 위험부담을 줄여야 한다. 노동력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높게 지불하고 노동력의 원천인 사람이 선호하는 삶의 터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그 밖에 생산요소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력을 갖추어야 하고 생산요소끼리의 상호작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경영능력도 필요하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경제활동과 환경과의 조화가 새로운 생산요소 유인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본의 이자율은 전국적으로 평준화되어 있어서 어느 도시가 상대적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본의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른 생산요소와의 혼합(mix)과 조화(harmony) 가능성 및 회수 가능성이다. 결국 자본은 다양한 기회와 안정성에 따라 이동한다. 노동력의 흐름방향과 흐름속도도 새로운 요인에 의해 영향받고 있다. 노동력은 다른 생산요소와는 달리 경제 외적인 요인과 결합하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노동력의 이동은 가족 단위의 생활방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족생활에 필요한 환경을 추구하여 결정된다. 자녀교육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 가족생활에 편리한 시설과 사회적 분위기 등 '삶의 질'이 다른 생산요소와 결합하여 노동력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요인이다. 기술력 또한 자본의 함수이고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생산요소이다.

기업활동에 필요한 생산요소의 흐름방향과 속도를 분석하면 지방 중소도시가 기업을 유치하려 할 때 불리한 조건과 유리한 조건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소도시는 투자기회가 적은 반면 토지이용의 탄력성은 다른 대도시에 비해 높은 편이다. 가지고 있는 불리한 조건의

폐해는 줄이고 유리한 조건을 살려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모든 지방이 소망하는 바다. 또한 기업활동이 무조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 중소도시가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입지계층을 통해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는 저렴한 경제공간(산업단지 등)을 조성하여야 한다. 대기업을 계획체계기업으로서 많은 후방연관기업을 유인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대기업을 대부분 최종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하도급망을 형성한다. 특히 생산공정의 수직적 분리와 수평적 결합력은 산업별 독특한 입지계층을 형성하여 광범위한 공간을 필요로 한다. 대기업을 입지한 장소는 단순히 생산공간만이 아니라 동시에 소비 공간이기도 하다. 즉, 소비자로서의 기업은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생산요소를 추구하기 마련이다.

대규모 장치를 필요로 하는 대기업을 경우 지대(rent)는 기업 활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즉, 대기업을 생산체계에 있어서 관리기능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단위당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유인책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 중소도시도 저렴한 공장부지를 형성, 공급하면 대기업을 끌어들이 수 있다. 다만 대기업을 많은 후방연관기업과 물리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는 공간형성적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대기업 자체에 필요한 지역환경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 전반에 필요한 공간구조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주어야 유치될 수 있다.

둘째, 생산체계의 관점에서 변환기능 위주의 기업보다는 관리기능 위주의 기업을 선별적으로 유치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의 관리기능은 생산요소끼리의 결합비율, 결합방식, 결합시기 등을 조작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고도의 기술인력이 필요한 변환기능은 지방 중소도시 거주 노동력이 감당하기엔 버겁다. 관리기능 위주의 대기업을 수도권 중심지와 지방 중소도시의 차별성을 활용하여 공정과정을 공간적으로 연계할 수 있어서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즉, 대기업을 수직적 분리와 수평적 결합을 가능하게 하여 지방 중소도시의 장점을 추구하는 동시에 대도시의 단점을 피할 수 있다.

셋째, 지방 중소도시가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인접 지역의 기업환경, 인접 지역에 입지한 기업의 생산조직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 네트

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방 중소도시는 집적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다. 우선 지방 중소도시는 정보생산 능력이 상대적으로 미미하고, 기업 종사자들의 자녀교육 및 문화활동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이러한 여건은 어느 한 도시가 자체 노력으로 구축하기엔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인접 지역과의 기능분담 및 상호협력 체계는 지방 중소도시의 집적이익을 증대시켜 마치 대도시에서의 집적효과와 같은 역할을 창출할 수 있게 해준다.

넷째, 현대사회에서 기업은 생산단위일 뿐만 아니라 소비단위이기도 하다. 즉, 기업은 재화를 생산하는 동시에 다양한 생산요소, 공공서비스를 소비하기도 한다. 소비자로서의 기업은 자녀교육여건, 문화 및 여가활동 시설과 프로그램, 환경적 건전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기업은 노동자들이 추구하는 삶의 질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의 구성원끼리의 신뢰, 연결망(network), 지역사회 참여 등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금융자본, 물리적 자본(도로, 공원, 기반 시설 등) 등 전통적인 자본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생산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의 개념요소는 신뢰, 참여, 연결망, 제도준수 수준 및 남을 배려하는 이타주의로 요약된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지방 중소도시와 수도권 대도시간의 전통적인 자본격차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즉,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지방 중소도시는 수도권 대도시와 경쟁할만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참고문헌>

- 권오혁, 2005, 참여정부의 신지역주의적 산업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7(4) pp. 1-20.
- 김형국, 1983, 국토개발의 이론연구, 서울 : 박영사.
- 박삼옥, 1992, 영국의 첨단기술 산업정책과 지역정책, 제1회, 지역연구 학술발표회 자료, 지역종합연구소.
- _____, 1989, 첨단기술산업입지와 지역경제발전, 지역연구 제5권 제2호.
- 박영철, 2005, 지식기반경제시대의 산업입지개발전략 연구, 사회과학연구, 성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편, 제14집, pp. 203-228.
- 소진광, 2006, 지역균형발전 정책대상으로서의 지역격차인식과 개별 기업의 공간선택 한계,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8(4) pp.1-24.
- _____, 2005,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서울: 박영사.
- _____, 1998, 정보화에 따른 제조업 입지변화연구, 지역사회개발연구 23(2). pp. 47-61.
- _____, 1994, 기술변화가 산업입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개념적 틀'을 중심으로, 지역연구 10(1). pp. 19-37.
- _____, 1991, 산업기술의 공간화과정 연구, 지방행정연구 6(3). pp. 103-129.
- Abernathy, W. J. and Utterback, J. M., 1978, Patterns of Industrial Innovation, Technology Review, June/July.
- Acs, Zoltan J., 2002, Innovation and the Growth of Cities, Edward Elgar.
- Auty, R. M., 1984, "The Product Life Cycle and the Location of the Global Petrochemical Industry After the Second Oil Shock," Economic Geography, Vol.60. No.4.
- Averitt, R. T., 1968, The Dual economy : the dynamics of American Industry, New York : Norton.

- Bale, John., 1981, *The Location of Manufacturing Industry : An Introductory Approach*, 2nd ed. Edinburgh : Oliver & Boyd.
- Chase, R. and N. J., 1977, *Aquilano, Production and Operations Management*, Revised ed., by Richard D, Irwin Inc.
- Friedman, J., 1972, "The General Theory of Polarized Development" in Hansen,N.,(ed.), *Growth Centers i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New York : Free Press.
- Gold, John R., 1980, *An Introduction to Behavioral Geography*,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Halpern, David., 2005, *Social Capital*, Polity.
- Healey, Micheal J. and Ilbery, Brain W., 1990, *Location and Change : Perspectives on Economic Geography*,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Holland, S., 1976, *Capital versus the regions*, London : Macmillan.
- Karaska, G. J., 1967, "The Spatial Impacts of Defense-Space Procurement: An Analysis of Subcontracting Patters in the United States," *Papers of the Peace Research Society (International)*, Vol.8.
- Krumme, G., and Hayter, R., 1975, "Implications of Corporate Strategies and Product Cycle Adjustments for Regional Employment Changes" in Lyndhurst Collins and David F. Walker(eds), *Locational Dynamics of Manufacturing Activity*, New York : John Wiley & Sons.
- Kuznets, Simon., 1966, *Modern Economic Growth*,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McCann, Philip., 2001, *Urban and Regional Economics*, Oxford University Press.
- McDermott, Philip and Taylor, Michael, 1982, *Industrial Organization and Location*,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utnam, Robert,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Schmenner, R. W., 1982, Making business location decisions, New Jersey : Prentice-Hall.

Schumpeter, J. A., 1939, Business Cycles, New York : McGraw Hill.

SCIG, 1998, Abstracts: Social Capital Conference(April 20-22, 1998). Kellogg Center, Michigan State University.

Sheard, P., 1983, "Auto-production systems in Japan: some organizational and locational features", Australian Geographical Studies, Vol.21. , 1983, "Industrial organization and logic of Intrametropolitan location, I:Theoretical considerations," Economic Geography, Vol.59. , 1983, "Industrial organization and the logic of intra-metropolitan locaion, II:A case study of the printed circuits industry in the Greater Los Angeles region," Economic Geography, Vol. 59. , 1983, "Location and Linkage Systems : a survey and reassessment," Annals of Regional Science, Vol.17. , 1984, "Industrial organization and the logic of intra-metropolitan location, III:A case study of the women's dress industry in the Greater Los Angeles region," Economic Geography, Vol.60. , 1987, "Industrial Organization and location : division of labour, the firm, and spatial process," Economic Geography, Vol.63.

Scott, A. J., 1988, "Flexible production systems and regional development : the rise of new industrial spaces in North America and Western Europe,"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12. , 1988, "Industrial Organization and Location : Labour, the Firm and Spatial Process," Economic Geography, Vol.62, No.3.

Taylor, M. J. and P. J. Wood, 1973, "Industrial linkage and local agglomeration in the West Midlands metal industries,"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Taylor, M. J. & N., 1983, Thrift, "Business Organization, Segmentation and Location", Regional Studies, Vol.17.

Tewdwr-Jones, Mark., 2002, The Planning Polity: Planning, Government and the Policy Process, The RTPI Library Series, Routledge.

Utterback, J. M. and Abernathy, W. J., 1975, "A Dynamic Model of Process and Product Innovation" OMEGA,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Science, Vol.3. No.6.

Vernon, R., 1966,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in the Product Cycl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80.

Watts, H. D., 1987, Industrial Geography, Harlow : Longman Scientific & Technical.

제3주제

공주시 환경색채 정립방안

이 충 훈

(충남발전연구원 산업디자인팀 연구위원)

공주시 환경색채 정립방안

이충훈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I. 환경색채개선의 필요성 및 목적

1. 필요성

우리나라의 도시건축물 등에 사용된 인공환경색채는 특징이 없고, 무질서하거나 색채의 부재로 삭막한 경관을 보여줄 뿐 특정한 이미지를 떠올릴 수 없다. 즉 지역 특성과 개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색채의 남용과 과용’으로 지적할 수 있다. 현대에는 과거와 다르게 인공재료 및 도료의 공급으로 ‘디자인’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색채를 남용 하면서 주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색이나 지나치게 자극이 강한색 등이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시가 가진 역사와 문화를 지키고,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 그것이 색채로 구체화해 나가는 속에서 지역의 환경색채가 정립된다고 할 수 있다. 문화의 시대, 창조의 시대에 부합되는 지역 아이덴티티를 살릴 수 있는 지역만의 고유한 환경 색채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색채를 정립하는 것은 바로 그 지역의 문화적 잠재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 경관색채디자인 개선을 위해서는 부차적인 기능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이미지 향상을 위해 색채에 대한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2. 목적

구석기시대에서 백제, 조선시대, 근대까지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공주의 환경색채를 개선함으로써 지역정체성 확립과 지역적 개성을 살려 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에 적용한다.

- 1) 도시가로경관, 공공시설물, 옥외 간판, 건축물외관 등의 색채개선을 통한 문화적 가치창출
- 2) 국제화시대에 차별화된 역사·문화 지역의 색채개선을 통한 상징성 부여 (도시의 정체성 확립)
- 3)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정을 통한 지역의 독창적인 환경색채 확립 (컨셉의 구체화를 통한 색채배색)
- 4) 미래지향적 지역환경색채 정립으로 지역이미지 향상

II. 환경색채의 개념

환경색채는 인간에게 관계되는 환경을 경관색채의 의미로 인간에게 심리적·물리적인 영향을 부여한다. 또한, 자연과 친화된 환경일수록 풍토성이 강해지며, 지역이 고립되고 차단될수록 지역색의 특성이 더욱 강해진다.

환경색채는 자연적이고 인공적인 특징을 형성하며 지역 거주자에게 영향을 준다.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색채의 변화는 건축물의 이미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또한, 건축물의 표면에서 나타나는 인공색채는 건축물의 사용자는 물론, 도시민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이와 같이 환경색채는 건축물 자체뿐만 아니라 건축물 주변에 전개

되는 모든 자연환경과 인공 환경의 종합에 의해 만들어지게 되며, 나아가 거리의 색채를 형성하고 도시전체의 미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즉, 인공색채의 조절을 통해서 자연환경과의 조화로움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환경색채 개념은 이전에 채색의 대상이 되는 단독 건축물만을 고려하였던 개념에서 경관에 적합한 색, 환경에 조화되는 색으로 그 개념이 확대되었다.

환경색채는 환경과 색채사이에 인간이 중심이 되어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지속적인 문제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즉,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여 서로에게 보다 나은 자극과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이고, 인간의 생존과 안전에 직결되며, 미적가치를 지키는데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주변 환경이 색채를 검토하고 연구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시각적, 심리학적 원리의 조화론을 주장한 비렌(F. Birren)에 의하면 환경색채는 “인간의 안전과 건강, 생존에 관계된 조정된(Controlled)환경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인간과 자연의 균형과 율동을 지키기 위해서는 도시 내 구조물의 미적 가치를 지키는 방법으로서 올바른 색채 사용에 있다고 하였다.

환경색채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주변의 색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경제적인 면과 인간 심리적인 부분 등 물리적인 면, 심리적인 모든 환경을 포함하는 색채를 의미한다. 색채는 무의식중에 잠재되어 인간생활 전 영역에 영향을 주며, 도시 및 지역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생활하는 인간의 정서와 의식마저도 지배한다. 따라서 환경이라는데두리안에서 건축물 자체의 수준 향상과 환경의 질적 개선, 주변 환경과의 관계성 등이 부각되어야 하며, 미래적인 사고에 의해 디자인되어야만 환경색채로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1. 환경색채 전제조건

환경색채는 단순히 개인적인 기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심리적, 생리적, 물리적 성질을 이용하여 사용할 때 도시환경을 조절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의 기후, 환경 등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살릴 수 있는 색채이어야 한다.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살리는 것은 도시의 개성적인 경관을 만드는 길이다.

둘째, 쾌적성을 부여해주어야 한다. 도시의 소음, 교통난, 공기오염 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편안한 느낌을 주는 색채가 시각적 피로감을 덜 수 있고 쾌적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대한 적절한 색채계획은 도시의 활력과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한다.

셋째,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연환경색채, 단지 경관색채, 가로경관색채, 건축물 또는 도시구조물의 색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도시경관 차원에서 색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관의 색채형태는 거리에 따라서 원경색(landscapecolor), 중경색(townscape color), 근경색(streetscape color), 근접색(sign color)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레벨에 따라 색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 도시환경색채는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계획원리에 의해 신중히 선택되어야 한다.

다섯째, 모든 디자인 원리에 지배적인 요소와 종속적인 요소가 있듯이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을 적절하게 조화시켜 생동감 넘치고 지역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색채사용이 필요하다.

III. 지역 아이덴티티를 위한 색채계획

도시의 가로환경 색채는 그 가로변의 건축물들과 조경에 의하여 주로 형성되고 있으며, 특히 건물 외벽의 색채는 방문객들에게 일차적인 인상을 주는 요소이다. 따라서 역사문화 도시의 건물 외벽색채는 그 도시의 개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경관구성요소이며, 도시이미지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의 아이덴티티는 지역적 특성을 갖는 통일된 색채를 사용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가 가능할 때 만들어진다. 흔히들 우리는 이상적인 도시로서 아이덴티티를 갖는 도시를 이야기한다. 색채는 크게 노력하지 않고도 도시에 강한 아이덴티티를 부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색채는 다양한 상징성을 갖고 사람들의 직접적인 반응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색채는 그 지역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역아이덴티티를 위한 색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그 지역의 색깔을 인위적으로 규제하고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생활에 보다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계획이다.

과거 도시의 미적 기능에 대한 관심이 전무했던 시기를 지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보이는 대상에서 느끼는 이미지가 인간심리 안정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요소로서 색채계획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인간이 일정 장소에 정착하고 무리를 형성하면서부터 문명발달과 함께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사회는 점차 분화되어 사회생활과 공공환경이 중시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하에 개인생활 공간 뿐 아니라 공공장소의 플래닝이나 색채계획이 물리적 기능과 함께 시각 환경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지역 이미지차별화를 위한 색채계획은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인간을 주체로 하여 고려되어야 하고, 시각적으로는 편안하고 쾌적한 느낌

을 주어야 하며, 또한 지역 나름대로의 개성과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IV. 해외도시 색채

1. 이집트

이집트의 색은 종교적인 관점에 머물러 있다. 이집트는 정신적인 풍요로움이 있으며, 우리와 다른 가치관이 존재한다. 이집트는 초록색과 빨강색을 즐겨 사용하였으며, 빨강은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생명을, 초록 역시 초원을 상징하는 생명의 색으로 인식되었고, 거대한 사막을 상징하는 색은 황토색이다. 또한, 나일강의 푸른 물줄기는 청색을 연상케 된다. 테베 서쪽의 왕가 골짜기에는 많은 파라오의 무덤이 있고, 오페라 아이다의 배경이 되었던 누비안 마을이 아직까지도 존재한다. 누비안인들은 한때 찬란한 문화를 번성시킨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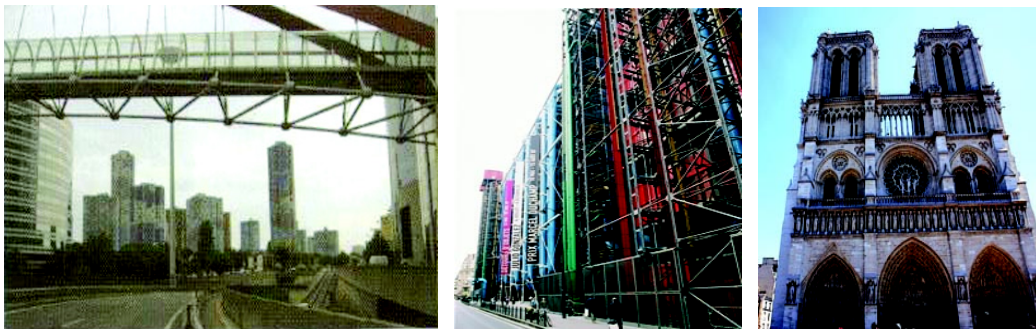


<그림 3-1> 이집트 람세스 2세 조각상과 벽화, 나일강

2. 파리

파리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이다. 파리에는 중세의 느낌과 최첨단의 현대적 경험이 공존한다. 파리에는 중세에 지어진 노트르담 사원과 루브르 박물관, 라 데팡스, 현대미술관인龐피두 센터 등이 있다.龐피두 센터는 프랑스 국가 이념인 자유, 평등, 박애를 상징하는

파랑, 빨강, 하얀색을 볼 수 있다. 파리에는 그림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파리를 낭만적인 도시로 만든다. 이처럼 특정지역의 색채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의 작품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카소, 마네, 모네 같은 인상주의 화가들이 활동하였으며, 이들 중 피카소는 희망인 비전을 상징하고자 할 때 청색을, 고흐는 태양을 상징하기 위해 노랑색을 즐겨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3-2> 파리 퐁피두센터, 노트담성당, 라데팡스 거리색채

3. 베를린

독일은 통일 후 수도를 베를린으로 옮겼다. 베를린은 새로운 수도로서, 유대인 박물관, 노만 포스터가 설계한 국회의사당, 소니센터, 미스 반 데어 로에의 국립미술관, 베를린 필하모니 등의 유명한 건축물들이 많이 산재해 있다. 국회의사당은 색채를 사용하지 않은 역사적 건물이다. 이 투명한 색을 사용함으로써 주위의 건물과 두드러지지 않는 배경역할을 하고 있다. 알도로시가 설계한 집합주택은 채도가 높은 색으로 베를린의 가로경관을 주도하고 있다. 초록, 노랑, 빨강 등이 어우러진 집합주택은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시선을 충분히 모으고 있다.



<그림 3-3> 베를린 거리, 알도로시 집합주택, 국회의사당

V. 환경색채 측색

1. 측색방법

조사대상의 선정방법은 주거지구, 상업지구로 구분하였으며, 공산성을 중심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구의 색채를 측색 조사하였다.

조사는 주요 건축물을 위주로 주변 환경과 환경시설물을 포함시켜 이루어졌다. 측색방법은 디지털 카메라(Canon pro1)를 이용하여 촬영하였으며, 색채분석은 먼셀색입체의 2차원 평면표현 방법을 사용하였다.

1) 주거지역

주거지역은 금강공원길, 왕릉로, 산성길목길, 웅진로, 무령로, 우금치길을 중심으로 조사되었다. 지붕색채는 회색76.9%(203동), 청색 11.3%(30동), 흰색1.9%(5동), 녹색1.5%(4동)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1> 공주시 주거지구의 색채현황

2) 상업지역

구도심의 상업지구는 공산성을 중심으로 금강공원길, 왕릉로, 웅진

로, 무령로를 따라서 길게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구도심을 대표하는 중심지역으로 의류판매점, 각종 음식점과 편의점, 주유소 및 기타 상가들이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건물색채는 회색-37%(100동), 백색25%(68동), 적색16.7%(44동), 갈색6%(16동), 청색4.5%(12동), 노랑색2.6%(7동), 검정색1.9%(5동), 녹색1.5%(4동), 기타색 3%(8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2> 공주시 상업지구의 색채현황

3) 역사 유물, 유적

석장리 구석기 유물유적과 공산성의 성문 및 성곽, 백제시대 토성의 색채 및 충청감영(포정사), 중동성당 등의 색채 등을 측색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공주의 기존 색채에 역사문화재 등에서 측색된 색채를 적용하여 정체성있는 환경색채를 창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림 4-3> 역사 문화재 및 유물 측색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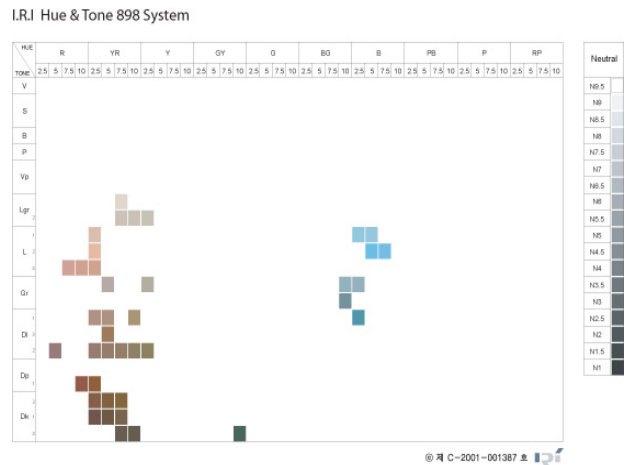
2. 결과분석

1) 주거지구

전체적인 톤이 L(밝은), Gr(회색의), DI(칙칙한), Dk(어두운)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로 YR(주황) 계열의 저채도 및 고채도 색상이 활용되어 무겁고 때로는 밝은 이미지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진회색과 YR(주황)계열의 색상분포로 무겁고 수수하며 차분한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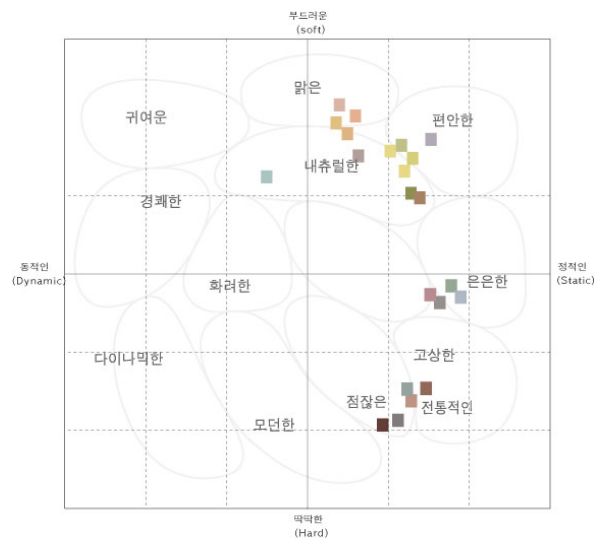


<그림 4-4> 공주시 주거지구 색채현황



<그림 4-5> 공주시 주거지구 색채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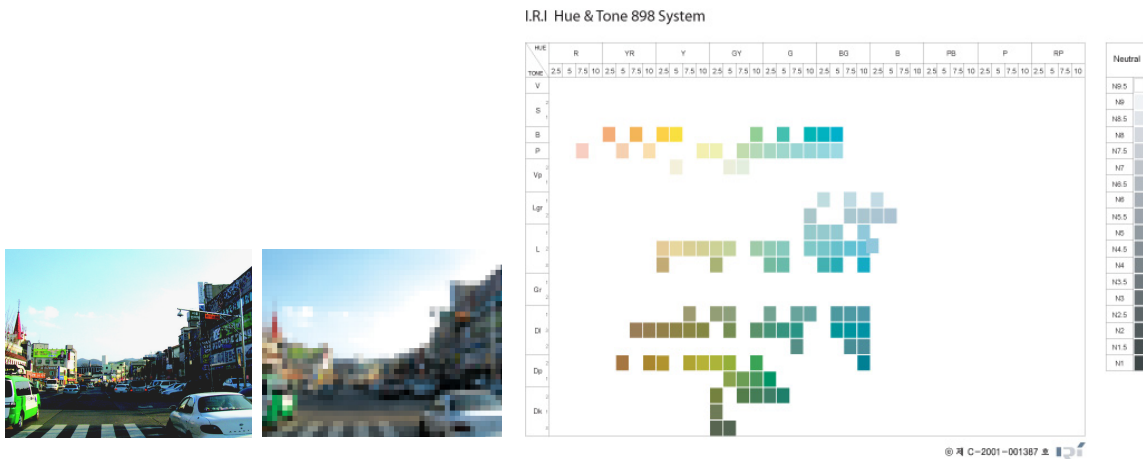
진회색과 YR(주황)계열의 색상분포로 무겁고 수수하며 차분한 이미지



<그림 4-6> 공주시 주거지구의 색채 이미지 맵

2) 상업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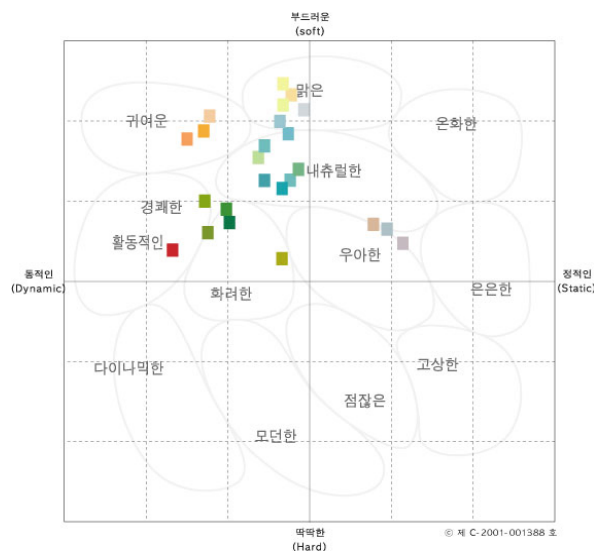
색채를 분석해 본 결과 상당히 다양한 색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Vivid톤의 고채도의 색상을 전체적으로 사용하여 건물의 색채가 사람들에게 시각적 자극을 주고 있다. 건물 외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조형물 또한 원색을 띄고 있다. 간판에서도 강한 이미지를 표현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고채도의 색상을 부문별하게 사용하여 도시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 반면에 전체적인 색상과 톤이 고루 분포하고 있어 활동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7> 공주시 상업지구 현황

<그림 4-8> 공주시 상업지구 색채분포

원색(Vivid)과 고채도의 색상을 사용하여 동적이고 경쾌하며 활동적인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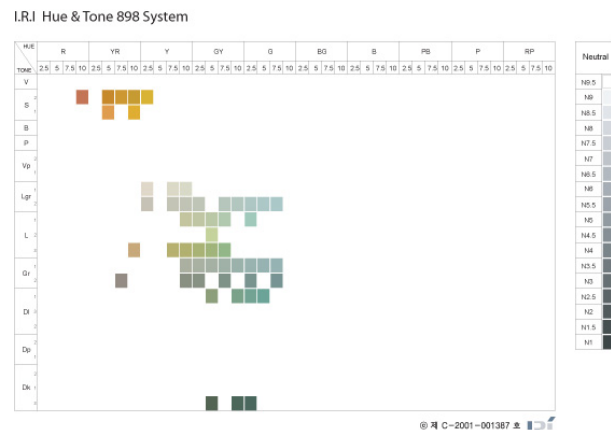
<그림 4-9> 공주시 상업지구의 색채 이미지 맵

3) 역사 문화재 및 유물

역사 문화재 및 유물의 색채는 전체적으로 L(밝은), Gr(회색의), Dk(어두운)의 톤으로 구성되어 중후하고 오래된 느낌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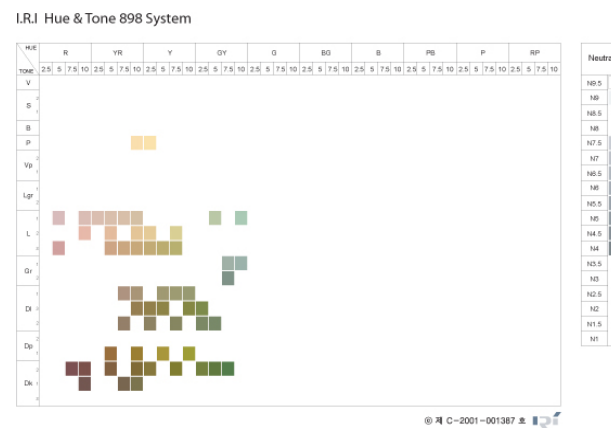
<그림 4-10> 공주 석장리 구석기 유물 색채현황



<그림 4-11> 공주 석장리 구석기 유물 색채분포



<그림 4-12> 공주 공산성 색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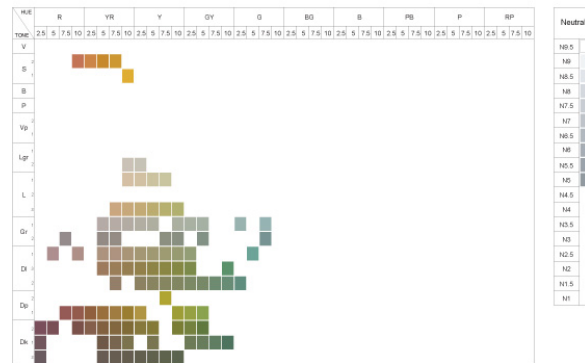


<그림 4-13> 공주 공산성 색채분포



<그림 4-14> 무령왕릉 색채현황

I.R.I Hue & Tone 898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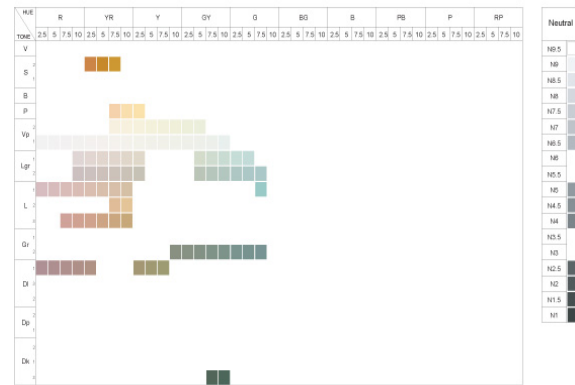
© 제 C-2001-001387 호

<그림 4-15> 무령왕릉 색채분포



<그림 4-16> 충청감영 색채현황

I.R.I Hue & Tone 898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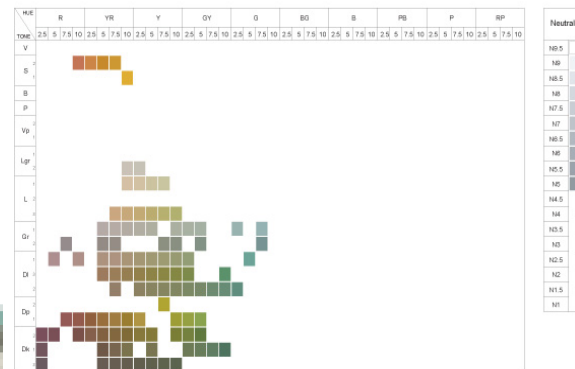
© 제 C-2001-001387 호

<그림 4-17> 충청감영 색채분포



<그림 4-18> 중동성당 색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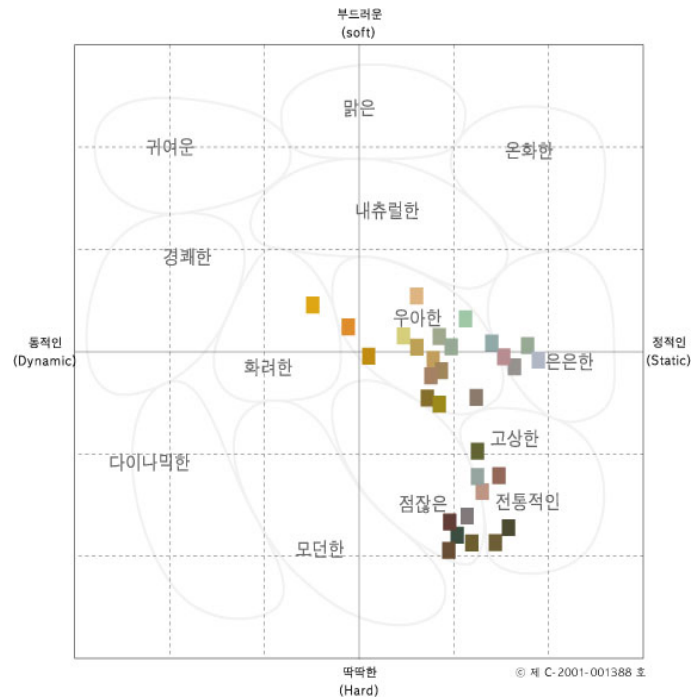
I.R.I Hue & Tone 898 System



© 제 C-2001-001387 호

<그림 4-19> 중동성당 색채분포

저채도의 색상분포로 격식있고, 품위있고, 전통적이며 차분한 이미지



<그림 4-20> 역사 문화재 및 유물 색채 이미지 맵

4) 환경색채 전략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접근방법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 세워져야 한다. 환경색채에 대한 접근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계획을 할 것인가. 주변의 환경과 조화를 생각하는 접근은 지형을 생각하고 기후를 생각하고, 문화를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을 끄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다른 것들과 동화하고 조화를 이루려는 겸손의 미덕이 있기 때문이다. 지역성을 고려하여 계획된 환경색채는 이용자에게 보다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주변 환경과 대비되고 차별화되는 색채접근을 할 것인가. 주변과 차별화되는 환경색채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며, 아름답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접근방식에서 이용자들의 느낌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변과 차별화된 건물은 색채를 이용하여 쉽게 표현할 수 있다.

고대의 건축물이나 토속건축들은 그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색채를 보여준다. 반면 인터내셔널리즘으로 표방되는 국제주의는 주변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색채의 관점에서는 지역주의를 표방하는 환경색채 전문가들과 연결되어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이 더 긍정적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이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때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관계를 맺은 자신에게 다가온다. 따라서 진정한 환경색채는 포스트모더니즘이 표방하는 지역성을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전통적인 역사문화 지역으로서, 지역적 이미지가 역사적 전통성을 나타내야 한다. 전통성은 오랜 세월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어떤 것을 의미한다.

역사에는 전통문화의 색채적 본질이 담겨있으며, 이러한 색채문화를 환경에 표현할 수 있는 전통색채의 색채 현대화 계획이 필요하다.

색채전략은 색채를 보는 기본적인 시각을 결정한다. 역사적 전통성을 따를 것인지, 현재의 시대를 반영할 것인지, 또는 현재와 역사적인 것을 절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색채전략의 부분이다. 색채전략은 색채감성과 색채 아이덴티티를 결정한다.

VI. 환경색채 가이드라인

1. 환경색채 디자인 컨셉 설정

공주의 환경색채 아이덴티티를 위하여 설정한 디자인 컨셉은 Memory, Transition을 추출하였다.

- Memory - 세월의 두께가 쌓이고 그만큼의 사람과 이야기가 따르고 전통과 문화의 향을 입히면 거리는 위대한 유산으로 남는다. 잊혀져

가는 역사와 문화, 전통이 공주라는 도시속에서 제 모습을 가지고 살아 숨쉴 때, 지역의 의미와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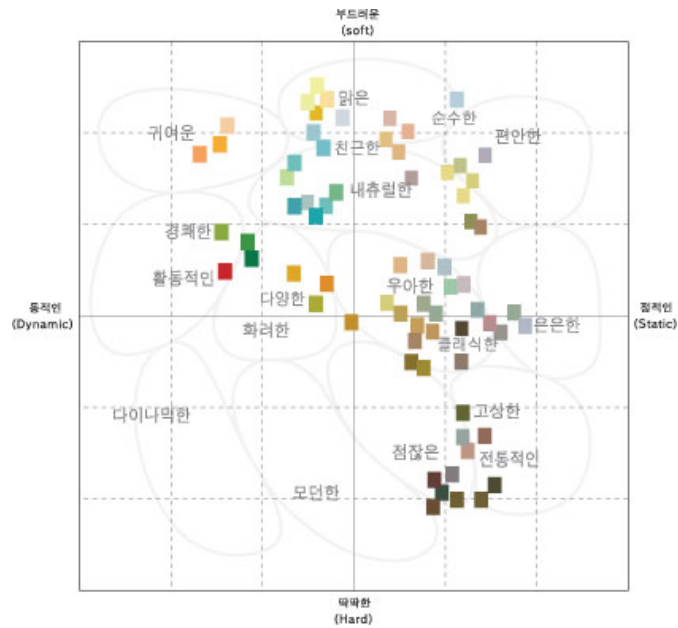
- Transition - 흐름을 통해 시간과 역사성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시간이 흘러가면 모든 만물은 소멸한다. 이러한 소멸은 인간의 마음을 어둡게 하지만 다음 세상을 기대하게 만든다. Transition은 이러한 시간, 역사의 흐름에 대한 개념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2. 공주의 색채이미지 스케일

공주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역사·전통과 현대, 자연스러움과 인공적인 모습들이 서로 얹혀있다. 새로움은 그 자체로서 의미는 없으며, 도시속에 역사의 전통적 모습이 살아 있을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공주의 환경색채계획은 공주라는 공간이 아닌, 의미와 정체성이 있는 장소로 만들 수 있는 색채계획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주의 기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측색색채에 역사문화재와 자연환경 등에서 추출한 색채를 적용한다면 정체성 있는 환경색채를 찾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디자인 컨셉에 형용사를 대응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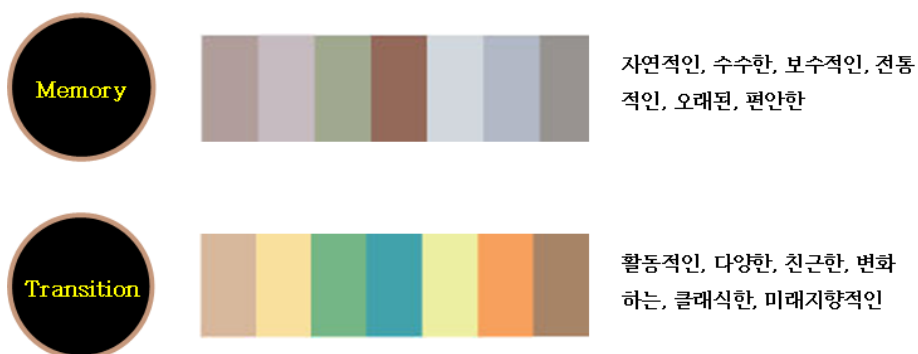
- Memory : 전통적인, 역사적인, 오래된, 편안한
- Transition : 활동적인, 변화하는, 융합하는, 미래지향적인 등의 어휘를 추출 할 수 있다.



<그림 5-1> 디자인 컨셉에 의한 색채 이미지 맵

3. 환경색채 적용 가이드라인

환경색채의 감성어휘에 따라 배색을 결정해야 하며, 선택한 배색코드를 실제 건물에 적용하는 것이 색채적용이다. 앞서 언급한 기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색채에 역사문화유적에서 측색한 색채를 배색자료로 활용한다.



<그림 5-2> 환경색채 배색코드 예시

4. 공공시설물의 색채적용

주민 모두를 위한 활기찬 거리, 품격 있고 쾌적한 환경을 목표로 한 색채계획은 공공시설물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도시의 스트리트 퍼니처(공중전화 부스, 안내사인, 가로등, 벤치, 휴지통, 승강장 등)는 도시경관 형성에 악세사리로써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구조물들은 시민들에게 고유의 기능적인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그 구조물 자체의 조형미로써 도시경관을 바꿀 수 있는 요소이기에 색채관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각 가로와 구역의 기초색에 이러한 시설물들의 색채를 엑센트화 함으로써 도시경관에 활기를 부여할 수 있다.



<그림 5-3> 공공시설물의 색채적용

Ⅶ. 결론

- 역사문화지역의 환경색채는 단순히 도시의 미관을 장식해주는 관상적 역할을 넘어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지역의 이미지 개선에 기여
- 도심지를 찾는 방문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차별화된 이미지 창출 및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공디자인 측면에서 환경색채 디자인 개선으로 문화적 가치성 확대
- 환경색채가 정립된 공간은 시민이 공감하고 즐기는 Land Mark의 기능과 지역 주민의 문화와 감성수준이 표현된 장으로 국가적 자산 의미

<참고문헌>

- 박정은, 지역사회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환경색채디자인에 관한 연구
- 김미경, 도시의 지역성을 고려한 환경색채계획의 필요성과 방법, 한국생활 환경학회지 제10권, 2003
- 이충훈, 도시이미지 차별화를 위한 색채활용방안, 경희대학교 디자인연구원 논문집, Vol.8 No.2, 2005
- 이진숙, 도시경관색채 기본계획의 사례연구, 한국색채학회, Vol.18, No.2, 2004
- 김대수, 조정송, 도시경관의 통합적 개선을 위한 색채관리제도연구, 2003, 10
- 박명원, 한국인의 색채의식 연구, 동양예술 4호, 2001
- 요시다 신고, 이석현 역, 경관법을 활용한 환경색채계획, 미세움출판, 2007
- 이현수, 도시색채 이야기, 도서출판 선, 2007
- 박돈서, 건축의 색, 도시의 색, 기문당, 1999
- 윤희림, 컬러리스트 배색이론, 도서출판 국제, 2006
- 공주 공산성 유적정비 및 경관관리 기본계획, 공주시, 2005
- 충남 고도 옛 모습 되살리기, 충청남도, 2000

M.E.M.O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M.E.M.O

[illegible]

M.E.M.O

[illegible]

_____ M.E.M.O _____

[illegible]

M.E.M.O

[illegible]